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국어의 고유어 접두사 선정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Native Prefix Selection of Korean
Language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상 호

2020년 2월

국어의 고유어 접두사 선정에 관한 고찰

지도교수 최 대 희

이 상 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이상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2월

A Review on Native Prefix Selection of Korean Language

Lee Sang-Ho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Choi Dae-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0. 2.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차례 >

1. 머리말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검토	2
1.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
1.4. 논의의 구성	6
2. 이론적 배경	7
2.1. 단어의 형성	7
2.2. 어근과 접사	7
2.3. 접두사 설정의 한계	8
3. 고유어 접두사 선정 기준	16
3.1. 접두사 선정 기준 검토	16
3.2. 접두사 선정 기준 설정	20
4. 고유어 접두사 목록 검토	24
4.1. 사전에 오른 고유어 접두사 목록	24
4.2. 어근과 동일한 형태 접두사	32
4.3. 어근과 유사한 형태 접두사	72
4.4. 고유어 접두사 목록 검토 결과	100
5. 맺음말	103
참고 문헌	105
Abstract	108

< 표 차례 >

<표1> 사전별 고유어 접두사 등재 현황	5
<표2> 접두사 선정 기준 제시 사례	16
<표3> 사전에 등재된 접두사 목록	25
<표4> 고유어 접두사 유형	31
<표5> 체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 목록	33
<표6> 체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 선정	49
<표7> 동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목록	51
<표8> 동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선정	58
<표9> 형용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목록	58
<표10> 형용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선정	62
<표11> 관형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목록	62
<표12> 관형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선정	66
<표13> 부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목록	67
<표14> 부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선정	71
<표15> 명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목록	72
<표16> 명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선정	77
<표17> 동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목록	78
<표18> 동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선정	84
<표19> 형용사 어근과 유사한 접두사 목록	85
<표20> 형용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선정	94
<표21> 부사 어근과 유사한 접두사 목록	96
<표22> 부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선정	100
<표23> 고유어 접두사 목록 검토 결과	100
<표24> 고유어 접두사 재선정 목록	101

1. 머리말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현대 국어의 파생어에 형성하고 있는 고유어 접두사의 선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좀 더 명확한 접두사 선정 기준 방안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고유어 접두사 목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접두사 선정에 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선정 기준의 차이에 따라 연구자들마다 접두사 목록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접두사 목록 설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말 단어는 단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를 기본으로 두 어근이 합쳐지거나,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 등이 붙어 복합어를 이루면서 형성되는데, 이 중에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복합어를 형성하는 단어를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파생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고유어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이루는 문법 요소이다. 고유어 접두사는 접두사를 차용 기준에 의해 설정한 개념으로, 다른 한편에는 한자어 접두사가 있다. 접두사는 홀로 자립할 수는 없지만, 어근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 (1) ㄱ. 날고기, 햇과일, 선무당
- ㄴ. 불(不)규칙, 무(無)가치, 비(非)금속

(1)은 ‘파생어’의 예인데, (1ㄱ)은 어근 ‘고기, 과일, 무당’ 앞에, 고유어 접사 ‘날-, 햇-, 선-’이 결합하였고, (1ㄴ)은 어근 ‘규칙, 가치, 금속’ 앞에, 한자어 접사 ‘불-, 무-, 비-’가 결합하여, 기존에 어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구체화 시켜 새로운 단어를 이룬다. 한자어 접두사인 경우에는 그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고유어 접두사의 경우에는 개수가 많아 설정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

존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고유어 접두사의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그 기준에 따라 접두사 목록을 재설정하게 될 것이다.

접두사 선정 기준은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별, 접두사와 명사의 구별, 접두사와 부사의 구별, 접두사와 용언의 어간과의 구별의 문제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선정하게 될 것이다. 국어사전 등에 등재된 표제어에서 접두사들을 살펴보고, 접두사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목록을 재설정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행된 『표준국어대사전』 등 5개와 파생어 전문사전 1개 등 총 6개의 사전을 활용할 것이다.

1.2. 선행 연구 검토

우리말 접두사에 대한 연구는 형태론의 연구와 그 흐름을 같이 해 왔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 하나는 공시적 방법에 의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통시적 방법에 의한 연구이다. 공시적 방법에 의한 연구에는 접두사의 개념 정립과 접두사의 설정 문제, 접두사 처리에 대한 기준 설정과 목록 작성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통시적 방법에 의한 연구에는 의미 변화와 접두사 되기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공시적 방법에 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접두사 개념과 접두사 설정 문제를 다룬 연구에는 김계곤(1968)이 있다. 김계곤(1968)¹⁾은 한글학회 『한글 소사전』과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앞가지(접두사)를 비교, 연구하여 접두사 설정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접두사 처리에 대한 기준 설정과 목록 작성에 대한 연구에는 성환갑(1972), 김창주·안효경(1997) 등이 있다. 성환갑(1972)은 ‘비자립성, 단음절성, 어형 또는 의미 변화성, 어기의 독립성, 생산성²⁾’을 접두사 설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김창주, 안효경(1997)은 현대국어의 접두사 확립 기준으로 접사와 어기의 근본적인 차이는

1) 김계곤(1991)에 수록된 ‘앞가지 처리에 대한 관견’(1968, 요산 김정환 선생 송수 기념논문집)

2) 성환갑(1971)에는 ‘결합하는 후행 어기가 둘 이상이어야 함’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생산성’이란 말로 정리할 수 있어 ‘생산성’이란 말로 대신함.

형태적인 자립성 여부로, 접두사는 관형어에 비해 극히 제한적 어기와의 결합이 이루어지며, 접두파생어가 형성된 경우 접두사와 어기 사이에 다른 말을 추가 확대가 불가능하고, 접두사는 비자립적 형식형태소라 이에 결합하는 어기는 실질형태소여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통시적 방법에 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의미 변화와 접두사 되기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김상윤(2003), 정경애(2004), 김덕신(2004) 등이 있다. 김상윤(2003)은 국어 어휘 전반에 나타나는 어휘화 현상을 음운 변이와 음절 변화를 중심으로 음운론적 어휘화, 접사와 어기에 의한 형태론적 어휘화, 의미 확대, 분화, 전의에 의한 의미론적 어휘화로 분류하여 어휘화 현상으로 설명하였고, 정경애(2004)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접두사 설정 기준이 개별적으로 모든 접두사에 적용하기 힘든 점을 들어 1~3차 기준³⁾을 제시하여 접두사 설정을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김덕신(2004)은 접두사화의 양상을 형태의 변화, 기능의 변화, 의미의 변화를 주요인으로 생각하여 우리말의 접두사화의 양상과 특질을 밝히고 있다. 형태 변화의 양상으로는 축소와 확대를, 기능 변화의 양상으로는 고정화와 교체, 의미 변화의 양상으로는 탈색, 지속, 추상화, 주관화를 들어 우리말의 접두사화 과정을 설명하고, 접두사들은 이들 세 가지 양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나 하나의 변화에 이어 다른 변화 과정을 통해 접두사화 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지금까지의 접두사에 대한 연구는 접두사의 개념 규정, 접두사의 목록 마련, 접두사의 설정 기준, 접두사 되기 등으로 그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개개의 접두사에 설정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러한 연구 성과를 목록화하고 통일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한자어 접두사를 포함한 고유어 접두사에 대한 검토는 최규일(1989)에서 이루어졌고, 표준국어대사전 발행에 따른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해 송철의(2001)는 개별 접두사들의 접사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양혜(2002)에 의해 우리말 파생명사의 재분류와 목록화를 위해 고유어 접두사 설정 문제를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빈도수를 중심으로 분류를 시도하였고, 백문식(2004)은 우리말 파생어 사전을 편찬하면서 고유어 및 한자어 접두사를 아울러 갈무리한 바 있다.

3) 정경애(2004)는 1차 기준은 '유형별 모두 적용되는 기준', 2차 기준은 '특정 유형에만 적용되는 기준', 3차 기준으로는 '수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고유어 파생 접두사 선정에 대해 일반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1.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1. 연구의 대상

접두사 되기의 과정은 어휘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형태소에서 의미가 의존적이고 추상적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 과정 이전의 실질형태소가 고유어나 한자어나에 따라서 고유어 접두사와 한자어 접두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고유어 접두사를 대상으로 한다.⁴⁾

(2) ㄱ. 고유어 접두사: 개-, 곁-, 곁- …….

ㄴ. 한자어 접두사: 갈(褐)-, 고(古)-, 고(高)- …….

언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어서 형태든 기능이든 의미든 늘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접두사 또한 늘 변화의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이런 진행 과정으로 본다면, 이미 예전에 추상화의 과정을 모두 걸쳐서 이미 접사로 굳어진 접두사와 접두사화의 과정이 진행 중인 접두사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접두사화가 진행 중인 경우는 실질형태소로서의 의미가 어느 정도 남아있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접두사의 선정이 다른 것도 국어사전에 등재된 접두사의 숫자가 다른 것도 근본 원인은 접두사로 굳어졌는지 변화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도 국어사전에 등재된 고유어 접두사의 의미와 그 의미의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4)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는 한자어 접두사 86개, 고유어 접두사 83개가 표제어로 올라 있고,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에는 각각 116개, 113개가 올라 있다.

1.3.2. 연구의 방법

접두사 선정 기준은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별, 접두사와 명사의 구별, 접두사와 부사의 구별, 접두사와 용언의 어간과의 구별의 문제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그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접두사 목록은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국어사전 등에 등재된 표제어에서 접두사들을 살펴보고 목록을 설정할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 등 5개⁵⁾와 파생어 전문사전 1개⁶⁾ 등 총 6개의 사전을 활용할 것이다. 각각에 등재되어 있는 고유어 접두사는 다음과 같다.

<표1> 사전별 고유어 접두사 등재 현황

사전별	① 표준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	②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③ 국어대사전 (이희승)	④ 새국어사전 (이기문)	⑤ 국어대사전 (한갑수)	⑥ 우리말 파생어사전 (백문식)
등재 수	83	113	79	95	70	99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전별로 고유어 접두사는 적게는 70개에서 113개로 다양하다. 각각의 사전에 겹치지 않은 접두사를 나열해 보면 136개나 된다. 이들 중 조사한 모든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37개, 다섯 개의 사전에서 접두사로 처리하는 것은 23개이다. 이처럼 각 사전별로 표제어로 올라온 접두사가 다른 것으로 보아 사전 편찬자에 따라 접두사를 설정하는 기준을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①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②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③ 『국어대사전』(이희승), ④ 『새국어사전』(이기문), ⑤ 『국어대사전』(한갑수)
6) ⑥ 『우리말 파생어 사전』(백문식)

1.4. 논의의 구성

기존의 고유어 접두사의 선정에 관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접두사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몇몇 개념을 살펴본다. 단어의 형성, 어근과 접사, 접두사 등의 개념과 접두사 설정의 한계 등을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기존의 접두사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접두사 선정의 기준으로 삼을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 불가성’ 등을 설정하여 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4장에서는 접두사 설정 기준에 따라 여러 사전에 언급된 136개의 접두사들 중 접두사와 다른 문법 요소와의 연결 관계에 따라 접두사 외에 동일한 형태를 다른 문법 요소로 사전의 표제어로 올라와 있는 경우와 사전의 표제어로 올라와 있는 요소의 일부를 변형하여 접두사로 표제어로 제시한 경우의 접두사 설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 외에 다른 단어나 어근들과의 연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화석화 되어 접두사의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접두사로 설정되어 있다.

4장 마지막에는 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접두사의 목록을 재설정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접두사 목록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설정 기준의 상이함과 의미 정도의 주관적 판단 등으로 제시 목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 또한 지금까지와 다른 목록이 제시될 것이며 의견의 다양성을 통해 향후 남북한의 공동 발간 예정인 『겨레말 큰사전』 등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언어 사용자들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적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었으면 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접두사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기본적인 몇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단어, 단어 형성의 중심부인 어근과 주변부인 접사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접두사의 개념을 설정하고 접두사와 다른 문법적 요소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1. 단어의 형성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립성과 분리성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뜻을 가진다.⁷⁾ 단어를 그 내부에서 휴지(休止)를 허용하지 않고, 그 앞뒤에만 휴지를 허용하는 언어 단위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단어는 그 형태소의 구성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눈다.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는 다시 실질형태소(어근)에 형식형태소(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을 파생어와 실질형태소(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파생어를 만들어 내는 단어형성의 절차를 파생법이라 하고 합성어를 만들어 내는 단어형성의 절차를 합성법이라고 한다.

- (3) 단어(單語) { 단일어: 고기, 하늘, 가-다, 보-았-다
 { 복합어: { 합성어: 고기-집, 오-가다 ← 합성법
 { 파생어: 날-고기, 빗-가다 ← 파생법

2.2. 어근과 접사

- (4) ㄱ. 어근(語根):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7) 『한국어 대사전』(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부분. 실질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

ㄴ. 접사(接辭):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

어근은 단어의 의미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모든 단어는 하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다. 접사는 의미 요소인 어근을 중심으로 앞이나 뒤에 붙어 단어의 비핵심부에 해당하는 의존형태소이다. 따라서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야만 의미의 변화나 문법적 기능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접사는 어근과 결합되는 자리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구분된다. 다음으로는 접두사 설정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2.3. 접두사 설정의 한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접두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접두사(接頭辭): 「명사」 『언어』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맨손’의 ‘맨-’, ‘들볶다’의 ‘들-’, ‘시퍼렇다’의 ‘시-’ 따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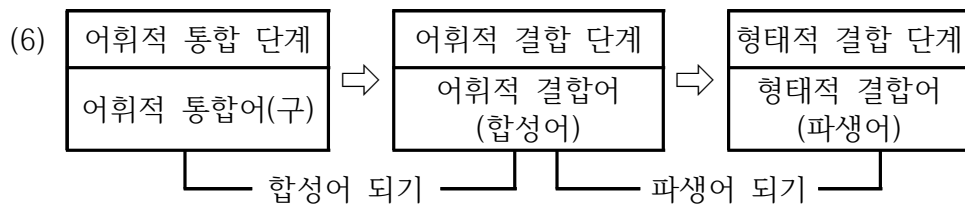
접두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결합하여 단어를 새롭게 형성하는 요소이다. 또한 접두사는 단어의 품사, 문법적 성질 등을 바꾸는 일이 없이 연결된 단어에 어떤 의미만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품사의 전성 기능을 가진 접미사에 비해 기능은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실질형태소가 접두사화 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합성어의 앞선 어근과 구별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접두사화는 문법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안주호(1996)는 Hopper (1993)의 정의를 이용하여 “문법화(文法化, grammarization)란 ‘어휘소에서 문법소’로, 또 덜 문법적인 기능을 하던 것이 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어떤 자립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어

휘 형태가 본래의 대상적 의미를 상실하고 기능적인 역할만을 하는 문법 형태로 바뀌는 것, 바꿔 말하면 자립 형태가 문법적 형태소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동일하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도 ‘덜(less)’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에서 ‘더(more)’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법화 현상이 일반적인 형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국어에 있어서도 문장에서 자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나 동사 등이 문법화 과정을 걸치면서 의미 변화 과정을 겪고 문법적 기능이 많아지면서 그 자립적 의미를 조금씩 상실하고 의존적 형태로 변하게 되어 접사나 조사, 어미 등 문법적 기능을 갖는 형태소로 변하게 된다.

정경애(2002)는 문법화 과정을 고려하여 파생 접사화 과정을 어휘적 통합 단계, 어휘적 결합 단계, 형태적 결합 단계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어휘적 결합 단계(실사+실사)는 각각의 형태가 독립된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 결합하였을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그대로 지녀 합성어 되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선행하는 실사가 형태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홀로 쓰이지 못하고 의미상으로 추상화의 과정을 걸치게 되면 파생어가 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가 추상화의 과정을 걸치면서 파생어가 될 때, 그 추상적 의미를 지닌 앞부분을 접두사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실질형태소에서 변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품사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7) ㄱ. 내건다: 앞을 향하여 힘차게 건다.

내달다: 갑자기 밖이나 앞쪽으로 힘차게 뛰어나가다.

내두르다: 이리저리 휘휘 흔들다.

내쫓다: 밖으로 몰아내다. 있던 자리에서 강제로 나가게 하다.

- ㄴ. 내걸다: 밖이나 앞쪽에 내어 걸다.
 내놓다: 물건을 밖으로 옮기거나 꺼내 놓다.
 내물리다: 밖으로 내어서 물러나게 하다.
 내보내다: 밖으로 나가게 하다.
- ㄷ. 내-(접사): 순 우리말 움직임에 붙어, ①‘밖을 향하여’, ②‘힘 있게, 힘주어’의 뜻.[한글]
 ※ 일부 동사에 붙어 ‘힘있게, 힘주어, 마구’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문식]
- ㄹ. 내다(동): 통로, 창문 따위를 만들다. ‘나다’의 사동사.

(7ㄱ)과 (7ㄴ)은 모두 (7ㄹ)과 후행 어근과 결합한 단어들이다. (7ㄱ)은 (7ㄹ)의 ‘내다’의 의미에서 비롯되었으나 ‘밖을 향하여 힘차게’라는 의미를 가져 접두사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7ㄴ)은 ‘나다’의 사동사인 (7ㄹ)의 의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단계인 경우 실질형태소인 어근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형식형태소인 접사로 봐야할지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표준]과 [갑수]에는 접두사로 표제어에 올라와 있지 않고, [한글] 등 나머지 사전에는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다.

다음은 접두사와 관형사, 접두사와 부사, 접두사와 명사, 접두사와 용언의 어간과의 관계, 구별에 대해 살펴보겠다.

2.3.1. 접두사와 관형사

체언 앞에 붙어서 체언의 의미를 한정하는 접두사는 관형사와 그 기능의 차이가 많지 않다. 유창돈(1968)에서는 관형사는 체언의 앞에서 체언을 한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정어에 속하는 품사이고, 체언이나 용언 등의 다른 품사들이 체언 앞에 놓이어서 한정어의 구실을 하게 되었던 것이 관형사로 고정화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기삼·고영근(1985:165)은 관형사를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품사로 정의하여 형태상으로 불변어, 기능상으로 수식언이라고 정리하

고 있다. 이익섭 외(1992)은 ‘관형사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조사나 어미를 취하는 일이 없이 뒤에 오는 명사나 명사구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로서 항상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만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영지(2018)는 관형사의 특징을 형태상 ①어떠한 조사도 붙을 수 없고, ②어떠한 어미도 붙을 수 없으며, ③어떠한 접사도 결합할 수 없고, 기능상 ④뒤따르는 체언을 수식하며, 단어로써 ⑤자립성이 없고⁸⁾, ⑥후행 성분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체언 앞에 붙는 접두사와 관형사와는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②와 단어로 인정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어 둘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분포의 제약성과 후행하는 명사와의 긴밀도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접두사는 후행 어근을 필요로 하고, 관형사는 후행하는 체언을 필요로 하는데 그 후행 어근과 체언의 특성에 따라 결합의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접두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관형사는 체언과의 분리성이 강하여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있으나 다른 기준으로는 뒤에 오는 명사(구)와의 사이에 다른 단어가 위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관형사와 체언의 결합의 경우는 사이에 다른 단어가 위치할 수 있지만 접두사는 후행하는 어근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8) ㄱ. 새 검정 버전, 새 그 저고리, 새 아기 베개

ㄴ. *덧검정버전, *덧그저고리, *덧아기베개

(8ㄱ)에서 관형사와 명사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8ㄴ)에서보는 것과 같이 접두사와 명사어근 사이에는 둘 사이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분리하여 다른 단어를 더할 수 없다. 따라서 접두사와 후행 어근 사이의 분리 여부는 접두사를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8) 박영지(2018)에서 ‘자립성이 없다’는 의미는 조사와는 다른 것으로, 의미를 온전하게 지닌 단어이지만 문장내에서 실현할 때 독자적으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후행하는 명사(구)와 통합해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ㄱ.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네가 어제 샀다는 새 가방이니?

ㄴ. *아니, 이건 현.

ㄷ. 아니, 이건 현 가방.

2.3.2. 접두사와 부사

관형사가 체언 앞에 붙어서 그 체언의 의미를 한정하기 때문에 체언 앞에 붙는 접두사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용언에 붙어 용언의 의미를 한정하는 접두사와 용언 앞에서 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도 구별에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접두사와 부사는 둘 다 후행하는 용언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9) ㄱ. 갓 조리한 음식, 갓 구운 옥수수
 ㄴ. *갓스물, *갓서른, *갓마흔 : 갓 스물, 갓 서른, 갓 마흔
 ㄷ. *갓오다, *갓나오다 : 갓 오다, 갓 나오다

(9ㄱ)의 ‘갓-’은 부사임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9ㄴ)과 (9ㄷ)의 ‘갓-’은 접두사인 지 부사와 수사 또는 동사와의 결합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 (10) ㄱ. 그는 스물이 갓 된다.
 ㄴ. 그는 갓 스물이 된다.
 ㄷ. 갓 그는 스물이 된다.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갓’은 부사로 용언 앞에(10ㄱ) 붙는 게 일반적이거나 비교적 위치가 자유로워 보인다. 접두사는 단어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데 (10ㄴ, ㄷ)의 ‘갓’은 단어 사이를 넘나들어 쓰이고 있다. 달리 말하면 ‘갓’과 ‘스물’ 사이에 다른 문법적 요소(‘그는’)가 들어올 여지가 있어 ‘갓스물’을 하나의 단어로 보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9ㄴ)과 (9ㄷ)의 ‘갓-’ 또한 ‘이제 막, 금방, 겨우’의 뜻을 지녀 (9ㄱ)의 ‘갓’과 의미상 구별이 되지 않아 접두사로 처리하기 어렵다. 송철의(2001)는 수사를 수식하는 것(9ㄴ)은 부사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니라는 점과 분포의 제약이 심한 점(9ㄷ)을 중시하여 ‘갓’을 접두사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의미의 독자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부사로 보고 있다.

2.3.3. 접두사와 명사

접두사 중에는 명사에서 변한 게 많다. 시중에 나와 있는 6개의 사전에서 확인된 접두사 136개 중 어원이 불명확한 접두사 40개를 제외한 96개의 접두사 중 명사에서 변화한 접두사가 33개로 34.4%나 차지한다. 이들 명사에서 문법화하여 굳어진 접두사의 경우는 원래 명사와 구별하기가 어렵다.

(11) 걸(명사)

- ㄱ. 뫼비우스의 띠는 안과 걸을 구별할 수 없는 곡면으로 되어 있다.
- ㄴ. 사람을 걸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12) 걸-(접사)

- ㄱ. 그는 자기의 본색이 탄로 날까 봐 계속되는 질문에 걸대답만 하였다.
- ㄴ. 오늘 모인 사람은 걸대중으로도 100명은 넘겠다.
- ㄷ. 두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달라 이야기가 걸돌고 있다.
- ㄹ. 걸보리 가마를 차곡차곡 쟁여 놓았다.

‘걸(명사)’은 ‘물체의 바깥 부분’(11ㄱ),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현상’(11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걸대답(12ㄱ)은 ‘건성으로 하는 대답’, 걸대중(12ㄴ)은 ‘걸²으로만 하는 대강의 짐작’, 걸돌다(12ㄷ)은 ‘대화의 요점에서 서로 잘 맞지 않다’, 걸보리(12ㄹ)는 ‘탈곡할 때 걸²질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그²냥의 보리’의 의미로 사용되어 ‘물체의 바깥 부분’이라는 중심의미에서 멀어진 ‘건성으로, 대강의, 중심에서 벗어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그²냥’의 의미로 사용되어 ‘걸(명사)’과의 유연성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원래의 단어에서 변화하여 독자적인 의미를 획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걸²껍질, 걸²눈썹, 걸²면적, 걸²봉투’ 등은 ‘걸(명사)’의 의미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어서 의미의 독자성 획득의 측면에서 볼 때, 접두사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는 어휘적으로 자립하여 쓰이다가 두 어휘가 결합한 ‘합성어 되기’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3.4. 접두사와 용언의 어간

접두사 중에서 동사나 형용사에서 변화 과정을 걸친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접두사와 용언의 어간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이들의 구별은 앞에서 명사와 접두사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쓰임의 차이보다는 의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3) 설다(동)

- ㄱ. 뜬이 잘 들지 않았는지 밥이 설었다.
- ㄴ. 간감에 잠이 설었던 탓인지 하루 종일 피곤하다.

(14) 설-(접사): ‘충분하지 못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ㄱ. 잠에서 설깨어 눈을 깜빡이며 멍하니 앉아 있다.
- ㄴ. 얘기를 설들었더니 기억이 전혀 안 난다.

(13)의 ‘설다’는 열매, 밥, 술 따위가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 (14)의 접두사 ‘설-’은 ‘제대로 익지 않은’에서 ‘충분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의 뜻으로 어의 전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의미의 변화 과정을 겪어 사용되는 경우는 접두사로 처리한다.

또한 ‘설다’는 형용사로 ‘익숙하지 못하다[표준], 경험이 없이 서투르다[한글]’는 의미로 쓰이는데 익숙한 정도에 미치지 못해서 ‘충분하지 않은’으로 전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설-’과 연결되는 후행 어근이 동사인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동사인 ‘설다’에서 의미가 변화한 접사로 처리한다.

(15) 졸다(동)

- ㄱ. 찌개가 바짝 졸았다.

ㄴ. 잠깐 사이에 국이 졸아 짜다.

(16) 졸-(접사): ‘점점 졸이어’의 뜻.[한글]

ㄱ. 그는 이제야 피해를 졸잡아 보았음을 알았다.

ㄴ. 유월은 열여섯 살로는 펍 졸자란 편이나 체격은 색시꼴이 났다.

(15)의 ‘졸다’는 ‘(찌개나 국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의 의미이고, (16)의 ‘졸-’은 ‘점점 작거나 적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6ㄱ)의 ‘졸잡다’는 ‘일정한 양보다 적게 잡다’의 뜻이고 (16ㄴ)의 ‘졸자라다’는 ‘보통의 아이들보다 덜 자라다’의 의미로 보아 (16)의 ‘졸-’은 (15)의 ‘졸다’의 의미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한글]에서는 ‘졸-’을 접두사로 처리하여 ‘졸잡다, 졸자라다’를 파생어로 보고 있으나 의미의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졸-’은 선행 어근으로 볼 수 있어, ‘졸잡다, 졸자라다’는 합성어로 처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접두사와 관형사, 접두사와 부사, 접두사와 명사, 접두사와 용언(동사, 형용사)의 구별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행 어근을 수식한다는 점에서는 관형사나 부사와 유사하고, 원래 자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의미 변화 과정을 겪어 원래의 의미를 점차 상실하게 되어 결국은 의존적 형태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단어와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접두사의 설정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접두사와 다른 문법적 요소와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한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고유어 접두사 선정 기준

접두사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그만큼 접두사를 선정하는 게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먼저 기존의 접두사 선정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고 접두사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접두사 선정 기준 검토

접두사 선정을 위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더해 왔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설정 기준을 목록만 제시하고 공통적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까지 제시한 대표적인 접두사 선정을 위한 기준들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접두사 선정 기준 제시 사례

구분	형태면	의미면	비고
기주연 (1991)	① 접사의 의존성 ② 어기(語基)의 자립성 ③ 분리성 ④ 후속어의 제약성 ⑥ 접미사 연결 가능성 없음	⑤ 대치 가능성 없음 ⑦ 접두사의 의미의 변화성	
이흥식 (1993)	① 비독립성(비자립성) ② 단음절성 ③ 후속 어근의 독립성 ④ 어원 비유지성 ⑥ 접미사와 연결 불가능성	⑤ 비합성어 선행소 ⑦ 비확대 가능성	
김창주, 안효경 (1997)	① 형태적 자립성 ② 분포의 제약 ③ 확대 가능성 없음 ④ 후행요소 실질형태소와만 결합 ⑤ 접두사와 후행 어기의 결합은 수식관계임 ⑥ 형태변화(음절수가 줄어드는	⑧ 의미 변화 ⑨ 반의어, 동의어 부재	

구분	형태면	의미면	비고
	융합현상, 선행 요소의 음운 변화, 선행 요소의 영향에 따른 후행 요소의 음운 변화 ⑦ 다른 형태소와의 대치 가능성		
김덕신 (1997)	① 분리성 ② 삽입 ③ 형태변화	④ 독립성 ⑤ 분포 제약 ⑥ 의미 변화 ⑦ 의미 관계	기능상 ⑧수식 범위
송철의 (2001)	① 단어형성 요소임 ③ 분포의 제약 ④ 분리성 없음	② 어휘형태소가 아님 ⑤ 독자적 의미 ⑥ 생산성 있어야 함	
정경애 ⁹⁾ (2004)	① 의존성 ② 기어(基語)의 독립성	③ 의미의 변화 ④ 생산성	

몇몇 연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 접두사 선정 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접두사를 설정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별 접두사들을 설정하는 가운데 각각의 특성을 포함시키려다 보니 기준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접두사 선정 기준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7) 가. 접두사는 자립성이 없이 의존성을 띠어야 한다.
- 나. 접두사는 실질형태소 앞에 붙어 독자적인 의미를 더한다.
- 다.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 다른 문법적 요소를 추가하여 분리할 수 없다.

위에 제시한 공통적인 기준 외에 부분적으로 접두사 설정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18)과 같다.

9) 정경애(2004)에서는 1차 기준으로 ①의존성, ②기어의 독립성, ③의미의 변화, ④생산성으로 나누고, 2차 기준으로 용언의 접두사되기에서 ⑤단일용언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관형사 접두사되기에서 ⑥반의어 성립불가능성, ⑦한정된 수식 관계, ⑧비확대 변형성, ⑨선행 상성관형사와의 결합성, ⑩후속 어근 제한성, 부사 접두사되기에서 ⑪위치 이동 제약성, ⑫보조사 연결 불가능성, 3차 기준으로 고유어 접두사 모두에서 ⑬어형 변화, ⑭단음절성 등을 추가로 들고 있다.

- (18) ㄱ. 접두사는 결합 과정에서 형태가 변화한다.
 ㄴ. 접두사는 후행 어기의 의미에만 영향을 준다.
 ㄷ. 접두사는 연결어와의 분포가 제약적이어야 한다.
 ㄹ. 접두사는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
 ㅁ. 접두사는 단음절이어야 한다.
 ㅂ. 접두사에 후행하는 어기는 실질형태소로 자립성을 지녀야 한다.

(18ㄱ)의 ‘접두사는 결합 과정에서 형태가 변화한다.’에 대해 살펴보자. 형태 변화는 인접하는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형태소끼리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 형태소끼리 결속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19) ㄱ. 덧-버선, 헛-살다 (파생어)
 ㄴ. 고깃배, 고깃집 (합성어)
 ㄷ. 소나무, 마소 (합성어)

(19)에서 보는 것처럼 파생어일 때는 물론 합성어일 때에도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18ㄱ)은 접두사 설정 기준의 수의적 조건을 될 수 있지만 접사를 설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18ㄴ)의 ‘접두사는 후행 어기의 의미에만 영향을 준다.’에 대해 살펴보자. (18ㄴ)은 관형사와 접두사, 부사와 접두사를 구별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인다.

- (20) ㄱ. 새 옷과 신발(=새 옷과 새 신발)
 ㄴ. 맏아들과 손자(≠맏아들과 맏손자)
 ㄷ. 사랑방과 안채(≠사랑방과 사랑채)

(18ㄴ)도 관형사와 접두사의 수식의 범위가 차이나 둘 사이를 구별하는 요소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20ㄷ)처럼 합성어인 경우도 선행 어기가 후행 어기의 의미를 수식하는 경우(유속합성어)에는 접사 설정 기준과 구별이 되지 않아 접두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18ㄷ)도 관형사와 접두사, 혹은 부사와 접두사를 구별하는 요소로 많이 언급되는 조건이다.

(21) 새 문, 새 신, 새 이, 새 가지, 새 책, 새 집, 새 나무, 새 기분
 덧문, 덧신, 덧니, 덧가지, *덧책, *덧집, *덧나무, *덧기분

송철의(2001)은 (21)의 예를 들어 “통사적 요소들은 다른 요소들과의 결합에 있어 제약을 덜 받는데 단어형성 요소들(파생 접사들)은 결합될 수 있는 여기가 극히 제약된다.”고 하였다. 분포의 제약성은 관형사와 접두사의 문제가 아니라 관형사 ‘새’와 접두사 ‘덧-’의 의미에 따라 후속 체언(후속 어기)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18ㄹ)의 경우, 송철의(2001)는 “공시적으로 새로운 단어의 생성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접두사가 있다면 그것을 분석하여 사전의 표제어로 실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파생 예를 셋 이상 가지는 접사는 항목화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접두어의 생산성을 ‘셋’ 이상으로 볼만한 뚜렷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둘 이상의 용례만 있다 하더라도 접두사로 선정할만한 근거가 있으면 접두사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하나만 있는 경우는 굳이 접두사로 설정할 필요가 없이 단일어로 처리할 수 있지만, 언어는 유기체와 같아서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이 있어 하나밖에 용례가 없는 접두사도 생산성을 지녀 다른 어기와 결합하여 새말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생어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접사가 생산성을 상실하여, 또는 해당 단어가 사어(死語)가 되어 공시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파생어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지, 낮은지는 접두사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18ㅁ)은 성환갑(1972)에서 처음 설정한 이후 이흥식(1993)에서 ‘언어 생활에서 발음의 편의를 위하여 음절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단음절어는 자칫하면 독립성을 잃고 다른 어휘에 붙어 그 의미를 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2음절 이상의 접두사를 인정하고 않았다. 하지만 접두사들 중 단음절로 된 것이 많긴 하지만 ‘가시-’, ‘거머-’, ‘내리-’, ‘모다기-’ 등의 2음절 이상의 접두사도

있어 ‘단음절’이어야 하는 것은 접두사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다.

(18ㄱ~ㄴ)의 접두사 설정 기준은 부분적으로 접두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접두사임을 확정하는 요소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요소들은 접두사임을 확인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 일반적인 선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3.2. 접두사 선정 기준 설정

3.1.의 검토 과정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접두사 선정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2) ㄱ. 접두사는 실질형태소 앞에 붙어 독자적인 의미를 더한다.
- ㄴ. 접두사는 자립성이 없이 의존성을 띠어야 한다.
- ㄷ.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 다른 문법적 요소를 추가하여 분리할 수 없다.

3.2.1. 의미의 변화성

접두사는 후행 어기에 붙어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요소이기에 새로운 의미를 지녀야한다. 두 개의 형태소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두 형태소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다면 두 형태소는 모두 어근으로 보아 합성어가 되고, 선행 요소의 의미가 변화되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때는 파생어가 된다.

- (23) ㄱ. 봄바람: 봄철에 불어오는 바람.[표준]¹⁰⁾
- ㄴ. 개꿈: 특별한 내용도 없이 어수선하게 꾸는 꿈.

(23ㄱ)의 ‘봄바람’에서 선행 형태소인 ‘봄-’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봄’은 어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23ㄴ)의 ‘개꿈’은 선행 형태소 ‘개-’는 ‘특별한 내용도 없이 어수선하게’라는 원래의 뜻에서 멀어진, 새로운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10) 이후 모든 낱말의 의미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여기에 올림말로 올라오지 않은 낱말의 경우에는 다른 사전을 참고하며, 이 경우는 낱말 풀이 끝에 해당 사전을 []안에 표기한다.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후행 어기와 단순한 결합(의미의 변화가 없는 결합)이 아니라 의미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룰 때, 선행 형태소 부분을 접사로 처리한다.

의미의 변화 요소로 선행 요소가 오랜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독립적인 단어로 쓰이지 못하고 사어(死語)가 되어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들 단어는 복합임에는 분명하지만 선행 요소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쓰이지도 않고 독립적 자질도 갖고 있지 않아 합성어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 단어는 파생어로 보고, 그 선행 요소는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24) ㄱ. 녃손자: 누이의 손자.

ㄴ. 녃할머니: 아버지의 외숙모.

ㄷ. 녃할아버지: 아버지의 외숙.

(25) ㄱ. 옹달샘: 작고 오목한 샘.

ㄴ. 옹달솔: 작고 오목한 솔.

ㄷ. 옹달우물: 앉아서 바가지로 물을 퍼낼 수 있도록 작고 오목하게 땅을 파서 만든 우물.

(26) ㄱ. 핫아비: 아내가 있는 남자.

ㄴ. 핫어미: 남편이 있는 여자.

(27) ㄱ. 핫바지: 솜을 두어 지은 바지.

ㄴ. 핫옷: 안에 솜을 두어 만든 옷.

ㄷ. 핫이불: 안에 솜을 두어 만든 이불.

(24)~(27)까지의 예들은 후행 요소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이기 때문에 복합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요소인 ‘녃-, 옹달-, 핫-¹, 핫-²’ 등은 언어 환경에서 쓰인 예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의미도 불분명하지만 그 어원을 복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일반 언어 사용자들은 의미의 특수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접두사

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처럼 사어화된 접두사들은 더 이상 어근으로 볼 수가 없으며 혼자 쓰이는 예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후행 요소는 자립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로 처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들 선행 요소는 접두사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복합어의 선행 요소인 어원어의 의미 변화로 그 의미가 구체화, 세분화 되는 경우와 추상화 되는 경우에 선행 요소는 접두사로 볼 수 있다.

(28) ㄱ. 도래(명): 둥근 물건의 둘레.

도래-(접사): ‘빙 돌아드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한글]

ㄴ. 말(명): 말과의 포유류.

말-(접사):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ㄷ. 들(명):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

들-¹(접사):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8ㄱ)의 ‘도래’는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데 접두사 ‘도래-’는 ‘그러한 공간적 상황의 성질’을 나타내 위치를 특성으로 의미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28ㄴ)의 ‘말(명)’은 짐승인 ‘말과의 포유류’를 지칭하는데, ‘말-’(접사)은 ‘말[馬]’의 여러 속성 중 ‘크다’는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고, (28ㄷ)의 ‘들’(명)은 공간적인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데 비해 ‘들-¹’(접사)는 ‘야생에서 자라는’, ‘품질이 낮은’[한글]의 의미를 지녀 대상을 추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후행 요소의 의미를 구체화, 세분화하여 지칭하거나 추상적인 의미를 더할 때 선행 요소는 접두사로 볼 수 있다.

3.2.2. 형태적 의존성

합성어의 선행 어기는 문장 내에서 독자적인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접두사는 후행 어기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문장성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29) ㄱ.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돌을 차면 발부리만 아프다.

ㄴ. 들녘에는 벌써 올벼를 수확하는 모습이 보였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올로 발생한다고 예보하였다.

문장 내에서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문장 구성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는 통사 범주에 속한다. 접두사는 단어 단위의 하위 요소이므로 문장 속에서 통사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는 접두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장에서 형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하고 다른 후속 요소에 결합하여야만 쓰이는 것은 접두사임을 증명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의 접두사 대부분은 그 발생의 시초로 볼 때, 실질적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변화된 것이기에 의존적 요소만으로 절대적으로 접두사로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3.2.3. 분리 불가능성

형태상으로 접두사는 후행 어기(어근)에 붙어서 단어를 이루게 된다. 어근과의 결합의 강도가 강하여 그 사이에 다른 말을 넣어 확대할 수 없다. 다른 성분 추가가 가능하다면 접두사로 볼 수 없다.

(30) ㄱ. 그는 큰 책상을 살 수 있었다.

그는 큰 그 책상을 살 수 있었다.

ㄴ. 명절에는 큰아버지 댁에서 차례를 지낸다.

*명절에는 큰 그 아버지 댁에서 차례를 지낸다.

‘큰-’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형용사 ‘크다’의 관형사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큰아버지’에서 ‘큰-’과 ‘아버지’는 의미 결합 정도가 강하여 분리 불가능하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분리불가능성의 접두사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두사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을 위 세 가지를 기본적인 자질로 보고 사전에 등재된 접두사의 성격을 검토하고 접두사로서 타당한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고유어 접두사 목록 검토

4장에서는 3장에서 논의한 접두사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사전에 실려 있는 고유어 접두사를 추출하여 목록으로서 적절한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내용은 먼저 사전에 오른 고유어 접두사 목록을 추출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추출한 목록에서 어근과 동일한 형태의 접두사, 어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형태의 접두사의 목록을 검토하여 접두사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접두사 목록과 논의를 통해 얻은 목록을 비교하여 검토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4.1. 사전에 오른 고유어 접두사 목록¹¹⁾

4.1.1. 접두사 목록 선정

우리말 접두사는 생성 근원으로 볼 때 실질적 형태소가 문법화 과정을 걸쳐 생성되거나 문법화 과정을 걸치고 있는 형태소이다. 사전마다 표제어로 올라온 접두사 목록이 다른 것은 접두사의 이 같은 범주적 특성 때문에 복합어의 앞 성분이 실질형태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접두사 목록은 최근 발간된 5종의 국어사전과 1종의 파생어 전문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유어 접두사를 대상으로 하고 고어나 방언은 제외하였다.

이들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온 접두사의 목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11)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각 사전의 명칭을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을 [표준],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을 [한글], 국어대사전(이희승)을 [희승], 새국어사전(이기문)을 [기문], 국어대사전(한갑수)을 [갑수], 우리말 파생어 사전(백문식)을 [문식]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표3> 사전에 등재된 접두사 목록

접두사	① [표준]	② [한글]	③ [회승]	④ [기문]	⑤ [갑수]	⑥ [문식]	등재 사전 수
가랑-						○	1
가막-		○	○	○			3
가시-	○					○	2
간- ¹				○			1
간- ²			○				1
갈-		○					1
갓-		○	○	○	○	○	5
강-	○	○	○	○	○	○	6
갯-		○	○	○	○		4
개-	○	○	○	○	○	○	6
거머-		○					1
걸-		○/걸- ²				○	2
검-		○	○			○/거머-,감-	3
겉-	○	○	○	○		○	5
겹-	○						1
결-		○	○	○	○	○	5
골-		○	○			○	3
곰-		○					1
군-	○	○		○	○	○	5
까막-		○	○	○			3
피-		○	○				2
날-	○	○	○	○	○	○	6
내-		○	○	○		○	4
내리-		○	○	○	○	○	5
넛-		○	○	○	○	○	5
늦-	○	○	○	○	○	○	6
다-		○					1
다가-					○		1
대-		○	○	○			3
덧-	○	○	○	○	○	○	6
테- ¹	○	○	○	○	○	○	6
테- ²	○					○	2
도래-	○	○				○	3
돌-	○	○	○	○		○/돌-	5
되-	○	○	○	○	○	○	6
된-		○	○	○			3

접두사	① [표준]	② [한글]	③ [회승]	④ [기문]	⑤ [갑수]	⑥ [문식]	등재 사전 수
들-	○	○	○	○	○		6
뒤-	○	○		○	○	○	5
드-	○	○		○		○	4
들 ⁻¹	○	○	○	○		○	5
들 ⁻²	○	○	○	○	○	○	6
들이 ⁻¹	○	○		○/들이 ⁻²	○	○	5
들이 ⁻²		○	○				2
땅-		○					1
떡-	○	○				○	3
막 ⁻¹	○	○		○/막 ⁻²		○	4
막 ⁻²	○	○				○	3
만-	○	○		○	○	○	5
말-	○	○	○	○	○	○	6
맞-	○	○	○	○	○	○	6
매-			○	○	○	○	4
맨-	○	○	○	○	○/맹-	○	6
맹-	○						1
덕-	○	○	○	○		○	5
메-	○	○	○	○	○	○	6
모다기-			○	○	○		3
몰-	○	○	○	○		○	5
몽당-						○	1
못-				○			1
민-	○	○	○	○	○	○	6
박-						○	1
밭-	○	○	○	○	○	○	6
배내-		○	○	○	○		4
벌-	○	○				○	3
불 ⁻¹	○	○			○	○	4
불 ⁻²	○	○				○	3
빃-	○	○	○	○	○	○	6
살-	○	○				○	3
새 ⁻¹	○	○	○	○	○	○	6
새 ⁻²				○			1
셋-	○	○	○	○	○	○	6
선-	○	○	○	○	○	○	6
설-	○	○	○	○	○	○/살-	6

접두사	① [표준]	② [한글]	③ [회승]	④ [기문]	⑤ [갑수]	⑥ [문식]	등재 사전 수
소-	○			○			2
쇠 ⁻¹	○		○	○	○		4
쇠 ⁻²		○	○	○	○	○	5
수-	○	○		○		○	4
숫 ⁻¹	○	○	○	○	○	○	6
숫 ⁻²	○					○	2
시 ⁻¹	○	○	○	○	○	○	6
실-	○	○		○		○	4
싯-	○	○	○	○	○	○	6
안-				○		○	2
알-	○	○	○	○	○	○/알 ⁻²	6
암-	○	○		○		○/암 ⁻²	4
애-	○	○/애 ⁻²	○	○	○	○/아시-	6
어리-		○	○				2
열-	○	○	○	○	○	○	6
엃-	○	○	○	○	○	○	6
에-				○		○	2
열-		○	○	○	○	○	5
엃-	○	○		○		○	4
옛-		○					1
오-	○	○		○	○		4
옥-		○	○	○	○	○	5
온-	○						1
울-	○	○	○	○	○	○/오-	6
옹-		○	○	○	○	○/옹달-	5
옹달-		○	○	○	○	○	5
외-	○	○	○	○	○	○	6
웃-	○	○	○	○	○	○	6
이-		○			○		2
이듬-		○		○		○	3
일-		○	○	○	○		4
작은 ⁻¹						○	1
잔-	○	○	○	○	○	○/잔-	6
졸-		○					1
죸-		○	○	○	○	○/죸랑-,죸-	5
죸-		○					1
줄 ⁻¹	○	○	○	○		○	5

접두사	① [표준]	② [한글]	③ [회승]	④ [기문]	⑤ [갑수]	⑥ [문식]	등재 사전 수
줄- ²		○			○		2
짓-	○	○	○	○	○	○	6
짜-	○	○		○		○	4
쪽-	○	○		○		○	4
차-	○	○	○	○	○		5
찰-	○	○	○	○	○	○/차-	6
참-	○	○	○	○	○	○	6
처-	○	○	○	○	○	○	6
첫-		○		○			2
치-	○	○	○	○	○	○	6
큰-						○	1
통-	○	○				○	3
푼-	○	○	○	○	○	○/푼-	6
한- ¹	○	○	○	○	○	○	6
한- ²	○	○				○	3
햇- ¹	○	○	○			○	4
햇- ²	○	○		○/햇- ¹	○	○	5
해- ¹	○	○	○	○	○	○	6
햇-	○	○	○	○	○	○	6
허튼-		○					1
헛-	○	○	○	○		○	5
홀-	○	○	○	○	○	○	6
홀-	○	○	○	○	○	○	6
황-						○	1
회-				○			1
홀-		○					1
휘-	○	○	○	○	○	○/회-	6
목록 수	83	113	79	95	70	99	

사전마다 접두사 목록을 달리하는 이유는 접두사 설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다만 어떤 사전에도 어떠한 기준으로 접두사를 설정하고 표제어로 올려 놓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31) ㄱ. 황소: 「명사」 큰 수소. ≡황우.

- ㄴ. 황우(黃牛): 「1」 누런빛을 띤 소.
「2」 큰 수소. =황소.
- ㄷ. 황송아지「명사」『동물』 수컷인 송아지.
- ㄷ. 황새: 「명사」『동물』 황새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1미터, 편 날개의 길이는 66cm 정도이고 백로와 비슷하나 훨씬 더 크며, 다리와 부리가 길다. 몸빛은 흰빛이고 날개깃, 어깨깃, 부리는 검정이며 눈언저리는 붉은빛이다.

(31)은 [표준]에 올라 있는 표제어들이다. ‘황-소, 황-송아지, 황-새’로 보아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하는 ‘황-’은 실질형태소이거나 형식형태소일 것이다. 의미는 ‘큰’ 또는 ‘수컷의’의 의미로 보이는데, 실질형태소라면 당연히 표제어로 올라와야 한다. [표준]에는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아 형식형태소로 판단하고 있는데 접두사 외에 다른 문법적 요소를 생각해 보기 힘들다. 일반사전에는 ‘황-’이 접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문식]에는 ‘크다’의 의미를 가진 ‘한-’의 이형태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 (32) ㄱ. 가랑-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가늘고 잔, 갈라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어원은 ‘가르다[分]’에서 온 말로 ‘굵지 않고 가느다랗고 작은’을 뜻함.(<가랑←가르+양).[문식]
- ㄴ. 가랑비: 「명사」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보다는 좀 굵다.≒세우.

(32ㄱ)에서 [문식]에는 접두사로 처리되어 있다. [표준]에는 (32ㄴ)처럼 형태소 분석은 하고 ‘가랑-’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¹²⁾ 잠정적으로 형태소 분석은 가능하여 분석하였으나 접두사로 확정짓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위에 제시된 146개의 고유어 접두사들을 3장의 접두사 선정 기준에 따라 하나씩 검토하기 위해 접두사의 유형을 설정하고 그 유형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4.1.2. 접두사의 유형

12) [문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전에는 ‘가랑-비’로 올림말로 올라 있다.

접두사 설정 기준의 다름 외에 접두사 목록을 달리하는 이유로는 접두사 부분의 의미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겹-’은 [표준]에서만 유일하게 접두사로 인정하고 있다.

(33) ㄱ. 겹: 「명사」 「1」 물체의 면과 면 또는 선과 선이 포개진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로 된 것.

ㄴ. 겹⁻²: 「접사」 ‘면이나 선 따위가 포개져 있는’ 또는 ‘비슷한 사물이나 일이 거듭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3)은 [표준]에 올림말로 나온 내용이다. 접사 ‘겹-’은 명사 ‘겹’에서 문법적 변화 과정을 걸쳐 접사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다른 사전에서는 ‘겹-’은 아직 접사화 과정을 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접두사 설정의 문제에서 의미 자질이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접사화 과정을 문법화의 한 요소로 보고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가 점차 의미의 변화를 겪으면서 의존적 형태소로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접사를 분류 기준으로 접사화하기 이전의 실질형태소의 원형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서술의 편의상 접사로 변하기 전의 원래 실질형태소의 중심의미¹³⁾로 쓰이는 단어를 ‘어원어’라고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말 접두사는 체언의 어근, 용언의 어근, 수식언의 어근에서 문법화(접두사화) 과정을 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접두사화 과정을 걸쳐 고착화되고 어원어의 쓰임이 사라져버린 경우는 접두사의 기원을 찾을 수 없다. 또는 근대 국어 이후에 접두사화 과정을 걸쳤지만 문헌 자료의 부족 등으로 그 어원어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다. 어원어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접두사화하는 과정에서 형태상 변화를 겪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원어 원래 형태를 유지하여 접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13) 이견환(2002)에서는 ‘낱말은 본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에 사용되면서 단순한 문맥적 변이로 사용될 수 없을 때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 고유의 의미를 ‘원형의미’로 명명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의미를 ‘중심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34) 접두사 { 어원어를 알 수 있는 접두사
어원어를 알기 어려운 접두사

(35) 어원어를 알 수 있는 접두사 { 어근과 동일한 형태 접두사
어근과 유사한 형태 접두사

다시 이들 형태소는 어원어의 품사에 따라 각각 명사어근 접두사, 동사어근 접두사, 형용사어근 접두사, 관형사어근 접두사, 부사어근 접두사로 나눌 수 있다. 접두사 설정 문제를 어원어의 품사에 따라 나눈 것은 접두사의 기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표3>에서 제시한 고유어 접두사를 유형별로 나누면 <표4>와 같다.

<표4> 고유어 접두사 유형

접두사 유형		접두사	표제수
어근과 동일한 형태 접두사	체언 어근	명사어근 접두사 간 ⁻¹ , 곁-, 겁-, 곁-, 꺾-, 도래-, 들 ⁻¹ , 만-, 말-, 먹-, 배내-, 소-, 쇠 ⁻¹ , 수-, 실-, 안-, 암-, 애-, 줄 ⁻¹ , 쪽-, 참-, 해 ⁻¹ , 흘-, 흘-	24
	용언 어근	동사어근 접두사 내-, 내리, 몰-, 벌-, 설-, 외-, 줄-, 줄 ⁻² , 흘-, 휘-	10
		형용사어근 접두사 늦-, 쇠 ⁻² , 옛-, 옥-	4
	수식언 어근	관형사어근 접두사 못-, 새 ⁻² , 옛-, 온-, 이듬-, 첫-, 허튼-	7
		부사어근 접두사 갓-, 들이 ⁻¹ , 막 ⁻¹ , 맨-, 몽당-, 박-, 통-	7
어근과 유사한 형태 접두사	체언 어근	명사어근 접두사 가시-, 갓-, 모다기-, 밭-, 솟 ⁻² , 옷-, 짹-, 풋-, 햇-	9
	용언 어근	동사어근 접두사 가랑-, 간 ⁻² , 거머-, 검-, 날-, 다가-, 뒤-, 드-, 들이 ⁻² , 예-, 옛-, 처-	12
		형용사어근 불 ⁻² , 가막-, 까막, 된-, 메-, 살-,	17

접두사 유형		접두사	표제수
수식언 어근	접두사	선-, 슷 ⁻¹ , 열-, 웅-, 일-, 작은 ⁻¹ , 잔-, 차-, 찰-, 큰-, 한 ⁻¹	
	관형사어근 접두사		0
	부사어근 접두사	덧-, 되-, 들 ⁻² , 맞-, 빗-, 쯤-	6
어원어를 알기 어려운 접두사		강-, 개-, 걸-, 골-, 곰-, 군-, 녃-, 다-, 대-, 데 ⁻¹ , 데 ⁻² , 돌-, 들-, 땅-, 떡-, 막 ⁻² , 매-, 맹-, 민-, 불 ⁻¹ , 새 ⁻¹ , 셋-, 시 ⁻¹ , 싯-, 알-, 어리-, 열-, 오-, 올-, 웅달-, 이-, 종-, 짓-, 치-, 한 ⁻² , 햇 ⁻¹ , 핫 ⁻² , 헛 ⁻¹⁴ , 황-, 회-	40
계			136

4.2. 어근과 동일한 형태 접두사

어근과 동일한 형태의 접두사는 접두사와 동일한 형태의 단어(어근)가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접두사를 의미한다. 이 때 용언의 경우는 어간 부분만 일치하는 경우 동일 어근 접두사에 포함시킬 것이다. 여기에서는 체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 용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 수식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4.2.1. 체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

어근과 동일한 형태의 접두사 중 체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는 24개로, 어원어를 알기 어려운 접두사를 제외한 96개 중 25.0%나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다. 이들이 접두사로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14) ‘헛-’은 [갑수]에는 관형어로 ‘허사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여 표제어로 들고 있으나 일상에서 쓰이는 예를 찾을 수 없어 단독 표제 접두사로 처리함.

<표5> 체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 목록

접두사	뜻풀이	예시
간- ¹	‘소금으로 절인’, ‘간을 친’, ‘짠맛이 나게 한’	명)간갈치, 간고등어, 간국, 간물, 간생선, 간장, 간조기, 간갈치
걸-	‘걸음으로만 보아 대강함.’ ‘실속과는 달리 걸음으로만 고려함’ ‘어울리거나 섞이지 않고 따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그냥’	명)걸구경, 걸낫, 걸대접, 걸대중, 걸뚝뚝이, 걸마음, 걸맴시, 걸뭇, 걸목소리, 걸밤, 걸벼, 걸보리, 걸시늉, 걸웃음, 걸잠, 걸치레, 걸허울 名) ¹⁵ 걸가량, 걸대답, 걸대접, 걸사주, 걸수습, 걸수작, 걸치장, 걸칭찬 동)걸꾸미다, 걸날리다, 걸놀다, 걸돌다, 걸따르다, 걸맞추다, 걸묻다, 걸바르다, 걸여물다, 걸잡다, 걸핥다 형)걸늬다, 걸약다, 걸여물다
겹-	‘면이나 선 따위가 포개져 있는’ 또는 ‘비슷한 사물이나 일이 거듭된’	명)겹깃, 겹고깔, 겹꽃, 겹눈, 겹살림, 겹이불, 겹주머니, 겹치마 名)겹경사, 겹사돈, 겹창 동)겹세다, 겹쌓다, 겹집다, 겹치다
결-	‘어떤 근본 되는 것에서 갈라져 나가거나, 그것에 딸린’	명)결가닥, 결가지, 결갈래, 결굴, 결길, 결눈, 결다리, 결뿌리, 결사돈, 결줄기, 결쪽, 결채 名)결간, 갈방, 결상, 결순
피-	‘피로 거짓 꾸민’	명)피배, 피병, 피잠
도래-	‘둥근’ 또는 ‘돌아드는’	명)도래걸쇠, 도래떡, 도래쌈, 도래술, 도래송곳, 도랫굽이 부)도래도래
들- ¹	‘야생으로 자라는’	명)들개, 들기름, 들깨, 들나물, 들버섯, 들비둘기, 들소, 들쥐, 들짐승 名)들국화, 들매화, 들완두, 들장미
말-	‘말이’ ‘그해에 처음 나온’	명)말나물, 말눔, 말딸, 말며느리, 말배, 말아들, 名)말상제, 말손녀, 말손자
말-	‘큰’	명)말개미, 말거머리, 말냉이, 말눈깔, 말땃, 말매미, 말박, 말버즘, 말잠자리, 말조개
먹-	‘검은 빛깔’	명)먹갈치, 먹구름, 먹두루미, 먹치마, 먹포도, 먹흙
배내-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의 것’	명)배내똥, 배내웃, 배넛냄새, 배넛니, 배넛소, 배넛버릇, 배넛병신, 배넛저고리, 배넛깃
소-	‘소의 부위’이거나 ‘소의 특성이 있음’	명)소간, 소고기, 소귀, 소귀신, 소백정, 소뼈, 소뿔
쇠- ¹	‘소의 부위’이거나 ‘소의 특성이 있음’	명)쇠간, 쇠고기, 쇠고집, 쇠귀, 쇠귀신, 쇠딱지, 쇠머리, 쇠백정, 쇠뿔, 쇠뼈
수-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 ‘길게 튀어나온 모양의’, ‘안쪽에 들어가는’, ‘잘 보이는’	명)수개미, 수거미, 수고라니, 수고래, 수고양이, 수곰, 수까마귀, 수꽃, 수평, 수나귀, 수단추, 수사슴, 수소, 수강아지, 수개,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토끼, 수뿔지, 수평아리 名)수나사

접두사	뜻풀이	예시
실-	‘가느다란’, ‘얇은’	명)실가락지, 실가지, 실개천, 실고추, 실구름, 실그물, 실금, 실눈, 실버들, 실비, 실안개, 실주름, 실지렁이, 실칼, 실톱, 실틈, 실핏줄
안-	‘여자임’	명)안머슴, 안사돈, 안사람, 안살림, 안손님, 안어버이, 안일 名)안노인, 안부인, 안상제, 안식구, 안양반, 안주인, 안편지, 안형제
암-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 ‘오목한 형태를 가진’ 또는 ‘상대적으로 약한’	명)암거미, 암고양이, 암까마귀, 암꽃, 암평, 암나귀, 암내, 암늪, 암사돈, 암소, 암강아지, 암개, 암컷, 암탉, 암뱀, 암뿔, 암평아리, 암글, 암나사, 암단추, 암치질, 암키와, 암뜰찌귀
애-	「1」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맨 처음’의 뜻을 더하는 말. 「2」 ‘어린’ 또는 ‘작은’의 뜻을 더하는 말.	명)애가지, 애갈이, 애벌, 애벌레, 애벌방아, 애나무, 애머슴, 애새우, 애술, 애송아지, 애티, 애호박, 애삼 名)애당초, 애동지, 애초 형)애짚다 명)아시구이, 아시김, 아시논, 아시방아, 아시잡
줄- ¹	‘계속 이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명)줄걸음, 줄달음, 줄담배, 줄뒤집, 줄따귀, 줄밤, 줄방귀, 줄번개, 줄벼락 名)줄고생, 줄도망, 줄사설, 줄초상 동)줄대다, 줄달다
쪽-	‘작은’ ‘작은 조각으로 만든’	명)쪽거울, 쪽걸상, 쪽구름, 쪽김치, 쪽다리, 쪽담, 쪽마루, 쪽마늘, 쪽지게 名)쪽문, 쪽대문, 쪽보, 쪽상, 쪽지, 쪽창
참-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 ‘품질이 우수한’ ‘먹을 수 있는’	명)참가죽, 참값, 참개구리, 참개, 참기름, 참깨, 참꿀, 참나물, 참눈, 참뚝, 참마음, 참말, 참떡, 참벌, 참붓, 참붕어, 참사랑, 참새, 참속, 참숯, 참붓, 참비름, 참빛, 참외, 참조기
해- ¹	‘당해에 난’, ‘얼마 되지 않은’	명)해각두기, 해쑥, 해콩, 해암탉
홀-	‘짝이 없이 혼자뿐인’	명)홀몸, 홀수, 홀시아버지, 홀씨, 홀아비, 홀알, 홀앗이, 홀김승
홀-	‘한 겹으로 된’ 또는 ‘하나인, 혼자인’	명)홀갈이, 홀겹, 홀그루, 홀꽃, 홀눈, 홀두루마기, 홀매듭, 홀몸, 홀바지, 홑버선, 홑비탈, 홑뿌리, 홀숯, 홀씨, 홀옷, 홀이불, 홀잎, 홑적삼, 홀치마, 홀힘 名)홀단청, 홀당의, 홑박자, 홑벽, 홑창, 형)홀지다,

동일 체언 어근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는 접두사 선정 기준의 하나인 ‘형태적 의존성’ 판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니, 원칙적으로 명사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

15) ‘명’은 ‘명사’, ‘동’은 ‘동사’ 등을 지칭한다. 다만 ‘名’은 한자말 어근에 우리말 접두사가 붙은 경우를 말한다.

문에 모두 형태적 의존성이 없이 자립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후행 어기에 결합한 경우는 모두 합성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의미의 변화성’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비록 동일 어근으로 보이나 후행 어기와 결합하고 나서 의미의 변화가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는 접두사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6) ㄱ. 간(명):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물질. 소금, 간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ㄴ. 간⁻¹(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소금으로 절인’, ‘간을 친’, ‘짠맛이 나게 한’의 뜻을 나타냄.[기문]

간고등어(명): 소금에 절인 고등어.

간국(명): 짠맛이 우러난 국물.

간물(명): 소금기가 섞인 물.

(36)은 ‘간’의 예인데, (36ㄱ)은 명사(어근) ‘간’이고, (36ㄴ)은 접사 ‘간⁻¹’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간⁻¹’은 사전 [기문]에만 접두사로 올라와 있는데 ‘소금으로 절인’, ‘간을 친’, ‘짠맛이 나게 한’은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물질인 ‘간’과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는 말이다. 접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원래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별이 안 되어 ‘간-’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로 접사로 보기보다는 어근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37) ㄱ. 걸(명): 「1」물체의 바깥 부분. 「반대말」속.

「2」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현상.

ㄴ. 걸-(접): 「1」((수량이나 정도를 추측하는 명사나 동사 앞에 붙어)) ‘걸으로만 보아 대강한다’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2」((일부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앞에 붙어)) ‘실속과는 달리 걸으로만 그러하다’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3」((일부 동사 앞에 붙어)) ‘어울리거나 섞이지 않고 따로’라는 뜻.

걸멋: 실속 없이 걸으로만 부리는 멋.

겉웃음: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웃는 웃음.

ㄷ. 미안한 듯 겉웃음을 크게 지었다.

*미안한 듯 겉 큰 웃음을 지었다.

(37)은 ‘겉’의 예인데, (37ㄱ)은 명사(어근) ‘겉’이고, (37ㄴ)은 접사 ‘겉-’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겉-’은 ‘(겉으로만) 대강한다’, ‘(겉으로만) 그러하다’, ‘어울리거나 섞이지 않고 따로’의 뜻을 갖고 있어 명사 ‘겉’의 의미를 추상화하여 의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37ㄷ)에서 ‘겉웃음’은 그 결속 관계가 긴밀하여 사이에 다른 문법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때, ‘겉-’은 접사 처리가 가능하다. [갑수]에만 접사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38) ㄱ. 겹(명): 「1」 ((주로 ‘겹으로’ 꼴로 쓰여)) 물체의 면과 면 또는 선과 선이 포개진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로 된 것.

「2」 ((흔히 ‘겹으로’ 꼴로 쓰여)) 비슷한 사물이나 일이 거듭됨.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면과 면 또는 선과 선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나타내는 말.

ㄴ. 겹-(접사): ‘면이나 선 따위가 포개져 있는’ 또는 ‘비슷한 사물이나 일이 거듭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겹고깔: 농악대들이 쓰는 고깔의 하나. 흔히 창호지를 겹으로 접어 고깔을 만든 후 그 위에 세 개 또는 다섯 개의 색종이로 만든 꽃을 달아 완성한다.

겹창: 온도의 변화나 밖의 소음을 막기 위하여 이중으로 만든 창.

겹사돈: 이미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또 사돈 관계를 맺은 사이. 또는 그런 사람.

(38)은 ‘겹’의 예인데, (38ㄱ)은 명사(어근) ‘겹’이고, (38ㄴ)은 접사 ‘겹-’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명사로 쓰이는 ‘겹’과 접두사로 사용된 ‘겹-’은 의미상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겹’은 접사로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어근’ +

‘어근’의 결합으로 봐야 한다. 사전 중 [표준]만 접사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사전에선 접사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39) ㄱ. 결(명): 「1」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운 데.

「2」 가까이에서 보살피 주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

ㄴ. 결-(접사): 「1」 ‘어떤 근본 되는 것에서 갈라져 나가거나, 그것에 딸린’의 뜻.[한글]

「2」 어떤 문제나 사물에서 덜 중요하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결가지(명): 원가지에서 돌아난 작은 가지.

결방(명): 「1」 안방에 딸린 작은 방.

「2」 남의 집 한 부분을 빌려 사는 방.

「3」 주가 되는 방에 곁붙은 방.

결뿌리(명): 고등 식물의 원뿌리에서 갈라져 나간 작은 뿌리.

(39)는 ‘결’의 예인데, (39ㄱ)은 명사(어근) ‘결’이고, (39ㄴ)은 접사 ‘결-’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결(명)’은 ‘공간적, 심리적 상황이나 가까이 있는 대상’을 의미하지만 접두사 ‘결-’은 ‘원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원줄기에 딸린’의 의미로 의미 전성이 이미 이루어져서 접사 처리가 가능하다.

(40) ㄱ. 피(명): 일을 잘 꾸며 내거나 해결해 내거나 하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

ㄴ. 피-(접사): 몇몇 이름씨에 붙어, ‘피로 거짓 꾸민’의 뜻.[한글]

어떠한 명사 위에 붙어서 그것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말.[희승]

피배(명): 거짓으로 앓는 체하는 배앓이.

피병(명): 거짓으로 병을 앓는 체하는 짓.

피잠(명): 거짓으로 자는 체하는 잠.

(40)은 ‘피’의 예인데, (40ㄱ)은 명사(어근) ‘피’이고, (40ㄴ)은 접사 ‘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한 생각이나 수단’의

의미이나 ‘피-’는 ‘거짓으로 꾸민’의 뜻으로 세분화 되고 있어 접두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41) ㄱ. 도래(명): 둥근 물건의 돌레.

ㄴ. 도래-(접사):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둥근’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①‘둥근’의 뜻. ②‘돌아드는’의 뜻.[한글]

도래떡(명): 초례상에 놓는 큼직하고 둥글넓적한 흰떡.

도래방석(명): 짚으로 둥글게 짠 방석. 주로 곡식을 넣어 말리는 데 쓴다.

도래샘(명): 빙 돌아서 흐르는 샘물.

(41)은 ‘도래’의 예인데, (41ㄱ)은 명사(어근) ‘도래’이고, (41ㄴ)은 접사 ‘도래-’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도래(명)’는 ‘둥근 물건의 돌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래-’는 ‘둥근 모양의’, ‘빙 돌아드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의미 세분화 과정을 걸치고 있어 ‘도래-’는 접두사로 처리한다.

(42) ㄱ. 들(명):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

ㄴ. 들⁻¹(접사):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일부 이름씨 앞에 붙어서 ‘들에서 자라는’ 또는 ‘품질이 낮은’의 뜻을 나타냄.[한글]

들꽃(명): 들에 피는 꽃.

들나물(명): 들에서 나는 나물.

들소(명): 야생의 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42)는 ‘들’의 예인데, (42ㄱ)은 명사(어근) ‘들’이고, (42ㄴ)은 접사 ‘들⁻¹’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들(명)’은 ‘편평한 공간’이라는 구체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들⁻¹’은 ‘야생에서 자라는, 품질이 낮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들(명)’은 ‘편평한 공간’이라는 구체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들⁻¹’은 ‘야생에서

자라는, 품질이 낮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들(명)'은 공간적 상황을 의미하지만 '들-1'은 '품질이 낮은' 또는 '들에서 자라는'의 의미를 더하고 있어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43) ㄱ. 말(명): 태어나거나 산출되는 차례의 첫 번.[희승]

※ ①'태어나는 차례의 첫 번'의 뜻. ②'첫 번, 첫째'의 뜻.

[한글]

ㄴ. 말-(접사): 「1」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말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몇몇 명사 앞에 붙어)) '그해에 처음 나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말아들: 둘 이상의 아들 가운데 맏이가 되는 아들.

말나물: 그해에 맨 먼저 나온 나물.

ㄷ. 말이(명):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순위인 사람.

(43)은 '말'의 예인데, (43ㄱ)은 명사(어근) '말'이고, (43ㄴ)은 접사 '말-'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말(명)'은 [표준]에는 표제어로 올라와 있지 않았고 [한글]에는 '말'은 명사와 접두사로 모두 올라와 있다. '말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예로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며느리, 말사위, 말손자, 말아들' 등이 있는데, 모두 '차례의 첫 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말-'은 어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44) ㄱ. 말(명): 말과의 포유류.

ㄴ. 말-(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말뎛: 큰 뎛.

말박: 매우 큰 바가지.

(44)는 '말'의 예인데, (44ㄱ)은 명사(어근) '말'이고, (44ㄴ)은 접사 '말-'로 어근과 접사의 형태가 동일하다. [고어사전]에 '말가얏미: 말개미(馬蟻), 물거머리: 말거

머리(馬蟻)’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접두사 ‘말-’은 ‘말[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말[馬]’의 여러 속성 중 ‘크다’는 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접사 처리가 가능하다.

(45) ㄱ. 먹(명): 벼루에 물을 붓고 갈아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검은 물감.

ㄴ. 먹-(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검은 빛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먹구름: 몹시 검은 구름.

먹치마: 검은 치마를 입은 것같이 아래쪽만 검게 칠한 연(鵝).

(45)은 ‘먹’의 예인데, (45ㄱ)은 명사(어근) ‘먹’이고, (45ㄴ)은 접사 ‘먹-’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먹(명)’은 구체화된 대상을 지칭하고 있으며, ‘먹-’은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표현하고 있어, 접두사로 설정한다.

(46) ㄱ. 배내(명): 날 때부터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음. 또는 그런 것.

ㄴ. 배내-(접사): 일부 이름씨의 뿌리에 붙어 ‘배 안에 있을 때부터’의 뜻을 나타냄.[한글]

배내똥: 갓난아이가 먹은 것 없이 처음으로 싸는 똥.

배냇버릇: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버릇 또는 고치기 힘들게 굳어진 나쁜 버릇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배냇소: 남의 소를 송아지 때 가져다가 길러서,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낳으면 원래 주인과 그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

(46)은 ‘배내’의 예인데, (46ㄱ)은 명사(어근) ‘배내’이고, (46ㄴ)은 접사 ‘배내-’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배내똥’, ‘배냇버릇’ 등은 ‘배내(명)’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배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로 처리한다. 또한 ‘배냇소’는 ‘배내¹⁶⁾’ + ‘소’의 형태로 합성어로 처리할 수 있다. ‘배냇소’와 같은 형태로는 ‘배

16) 배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배내’는 두 개의 표제어를 제시하고 있다. 배냇소의 ‘배내’는 ‘배내1’

넋닭, 배넋돼지' 등이 있다.

(47) ㄱ. 소(명): 솟과의 포유류.

ㄴ. 소-(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소의 부위이거나 소의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접두사. =쇠-.

소간: 소의 간.=쇠간.

소고기: 소의 고기.=쇠고기.

소귀신: 소가 죽어서 된다는 귀신. =쇠귀신.

(47)은 '소'의 예인데, (47ㄱ)은 명사(어근) '소'이고, (47ㄴ)은 접사 '소-'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소간, 소고기, 소귀신' 등은 접두사 '소-'와 명사 '소'의 의미상의 차이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합성어로 처리해야 한다. [표준]에서는 '소-'를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말고기, 말뼉'에서 '말-'도 접두사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48) ㄱ. 쇠(명): '소의'가 줄어든 말.

ㄴ. 쇠¹(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소의 부위이거나 소의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접두사. ≒소-.

쇠간: 소의 간.

쇠고집: 몹시 센 고집. 또는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

쇠딱지: 어린아이의 머리에 덕지덕지 늘어붙은 때. ≒쇠똥.

(48)은 '쇠'의 예인데, (48ㄱ)은 명사(어근) '쇠'이고, (48ㄴ)은 접사 '쇠-'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쇠간'은 '소의 간'과 의미상으로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다만 '쇠고집, 쇠딱지'는 비유에 의한 의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소'의 의미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표준]을 제외한 다른 사전에서는 '몹시 질기거나

의 의미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배내1: 남의 가축을 길러서 가축이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낸 뒤에 주인과 나누어 가지는 제도.

배내2: 날 때부터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음. 또는 그런 것.

고질이 된'의 의미로 접두사로 설정하고 있다.('쇠-²' 참조)

하지만 (49)와 같이 '말-, 돼지-' 등이 결합하는 많은 예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비유적인 의미가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접사 처리 문제도 '생산성'의 측면에는 아직 많지 않지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49) ㄱ. 말뺨: 성질이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거세어 뻗뻗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ㄴ. 돼지떡: 무엇인지 모를 물건들이 이것저것 범벅이 되어 지저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쇠-'의 처리는 (50ㄱ)처럼 '소[牛]'의 의미가 살아있거나 비유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어근으로 처리하고, (54ㄴ)과 같이 '작은' 또는 '몹시 질기거나 고질이 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접두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1.2.2. 참조)

(50) ㄱ. 쇠눈¹: ①소의 눈, ②어린이에게 녹내장이 생겨서 눈이 소의 눈처럼 커다랗게 되는 증상. 또는 그 눈.

⇨ '어근'+ '어근'으로 처리

ㄴ. 쇠눈²: 짙고 다져져서 잘 녹지 않는 눈.

⇨ '접두사'+ '어근'으로 처리

(51) ㄱ. 수(명): 생물에서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 쪽의 성(性).

ㄴ. 수-(접사): 「1」(('양', '염소', '쥐'를 제외한 성의 구별이 있는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짜이 있는 사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길게 튀어나온 모양의', '안쪽에 들어가는', '잘 보이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수개미: 개미의 수컷.

수나사: 두 물체를 죄거나 붙이는 데 쓰는, 육각이나 사각

의 머리를 가진 나사. 보통 너트와 함께 쓴다.

수키와: 두 암키와 사이를 엮어 잇는 기와. 속이 빈 원기둥을 세로로 반을 쪼갠 모양이다.

(51)은 ‘수’의 예인데, (51ㄱ)은 명사(어근) ‘수’이고, (51ㄴ)은 접사 ‘수-’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수-(접사)’의 「1」의 의미는 명사 ‘수[雄]’의 의미와 차이가 전혀 없다. 따라서 ‘수평, 수소, 수캐, 수컷, 수탉, 수탕나귀, 수돼지, 수평아리’ 등은 모두 ‘어근’+‘어근’의 결합으로 처리해야 한다. 「2」의 의미는 명사 ‘수[雄]’의 의미와는 의미상으로 많은 차이를 보여, ‘수나사, 수단추, 수무지개, 수키와, 수톨쩌귀, 수틀’ 등은 ‘접두사’+‘어근’으로 분석할 수 있다. ‘수-’와 대립적 의미를 가지는 접사로 ‘암-’이 있다.

(52) ㄱ. 실(명): 고치, 털, 솜, 삼 따위나 화학 원료를 써서 가늘고 길게 뽑아 만든 것.

ㄴ. 실-(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가느다란’, ‘얇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실눈: 실처럼 가늘게 뜯은 눈.

실금: 실같이 가늘게 그은 금.

실비: 실같이 가늘게 내리는 비.

(52)는 ‘실’의 예인데, (52ㄱ)은 명사(어근) ‘실’이고, (52ㄴ)은 접사 ‘실-’로 어근과 접사의 형태가 같다. ‘실눈, 실금, 실비’의 ‘실-’은 모두 ‘실[絲]’의 의미가 아니라 실이 지닌 속성인 ‘가느다랗고 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의미의 추상화 과정을 걸쳐 새로운 의미를 지니기에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53) ㄱ. 안(명): 「1」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

「2」 일정한 표준이나 한계를 넘지 않은 정도.

ㄴ. 안-(접사):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가 여자임을 나

타내는 접두사.[기문]

안머슴: 집안 살림을 돌보는 여자 일꾼.

안일: 주로 여자들이 하는 일.

안편지: 부녀자가 쓰는 편지.

※ 안팎: 사물이나 영역의 안과 밖. ⇨ ‘어근’+‘어근’

(53)은 ‘안’의 예인데, (53ㄱ)은 명사(어근) ‘안’이고, (51ㄴ)은 접사 ‘안-’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접두사 ‘안-’은 [기문]과 [문식]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안[內]’의 원래 의미는 ‘일정한 테두리, 또는 그 테두리를 넘지 않은’이다. 여기에서 의미가 전이되어 ‘여자’임을 뜻하게 되었다. 지난 시절에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아녀자들의 속성에 연유하여 의미의 추상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54) ㄱ. 암(명): 생물에서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 쪽의 성(性).

ㄴ. 암-(접사): 「1」 ((성의 구별이 있는 동식물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명사 또는 ‘놈, 것’ 앞에 붙어))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짝이 있는 사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오목한 형태를 가진’ 또는 ‘상대적으로 약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암꽃: 수술은 없고 암술만 있는 꽃.

암소: 소의 암컷.

암꿩: 꿩의 암컷.

암무지개: 쌍무지개에서 빛이 옅고 흐린 무지개.

암톨쩌귀: 수톨쩌귀의 뾰족한 부분을 끼우도록 구멍이 뚫린 돌쩌귀.

(54)는 ‘암’의 예인데, (54ㄱ)은 명사(어근) ‘암’이고, (51ㄴ)은 접사 ‘암-’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암-(접사)’의 「1」의 의미는 명사 ‘암[雌]’의 의미와

차이가 전혀 없다. 따라서 ‘암꽃, 암소’ 등은 모두 ‘어근’+‘어근’의 결합으로 처리해야 한다. 「2」의 의미는 명사 ‘암[雌]’의 의미와는 의미상으로 많은 차이를 보여, ‘암나사, 암단추, 암무지개, 암키와, 암톨쩌귀’ 등은 ‘접두사’+‘어근’으로 분석할 수 있다.

(55) ㄱ. 애(명):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는 ‘아이’의 준말.

ㄴ. 애-(접사): 「1」((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맨 처음’의 뜻을 더하는 말.

「2」‘어린’ 또는 ‘작은’의 뜻을 더하는 말.

애벌: 같은 일을 여러 차례 거듭하여야 할 때에 맨 처음 대강 하여 낸 차례. ≒ 초벌.

애늬은이: 생김새나 행동이 나이가 든 사람 같은 아이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55)는 ‘애’의 예인데, (55ㄱ)은 명사(어근) ‘애’이고, (55ㄴ)은 접사 ‘애-’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애-’가 ‘맨 처음’의 뜻을 더하는 경우는 ‘애[兒]’와 의미가 멀어져 접두사로 인식하는 데 별반 어려움이 없지만, ‘애머슴’처럼 후행 어기가 사람을 뜻하는 형태소의 경우 ‘애-’는 ‘어린 아이’의 뜻을 갖게 되어 여전히 어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56) ㄱ. 애머슴: 나이 어린 머슴. ⇨ 아이인 머슴(○), 어린 머슴(○)

ㄴ. 애호박: 덜 자란 어린 호박. ⇨ 아이인 호박(×), 어린 호박(○)

따라서 ‘애머슴’의 경우는 선행접두사 ‘애’는 어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애머슴’은 합성어로, ‘애호박’은 파생어로 처리한다.

(57) ㄱ. 줄(명): 노,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ㄴ. 줄-(접사): (몇몇 명사 앞에 붙어) ‘계속 이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줄벼락: 잇따라 계속 치는 벼락.

줄담배1: 잇따라 계속 피우는 담배.

줄담배2: 새끼줄 같은 데에 길게 엮어 놓은 잎담배.

⇒ (말리기 위하여) 줄에 엮어 놓은 담배. ‘어근’+
‘어근’

(57)은 ‘줄’의 예인데, (57ㄱ)은 명사(어근) ‘줄’이고, (57ㄴ)은 접사 ‘줄-’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줄-’은 ‘계속 이어진, 잇따라’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어 접사 처리가 가능하지만 ‘줄담배2’처럼 원래의 의미로 쓰일 경우는 합성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58) ㄱ. 쪽(명): 쪼개진 물건의 한 부분.

ㄴ. 쪽-(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 ‘작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작은 조각으로 만든’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쪽배: 통나무를 쪼개어 속을 파서 만든 작은 배.

쪽방: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서 한두 사람 들어갈 크기로 만들어 놓는 방.

(58)은 ‘쪽’의 예인데, (58ㄱ)은 명사(어근) ‘쪽’이고, (58ㄴ)은 접사 ‘쪽-’으로 어근과 접사의 형태가 동일하다. ‘쪽(명)’은 ‘쪼개진 물건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데 ‘쪽-’에는 ‘작은’의 의미를 더하고 있어 대상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걸치고 있어 접두사로 보아야 한다.

(59) ㄱ. 참(명):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ㄴ. 참-(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품질이 우수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먹을 수 있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참사랑: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참깨: 참갯과의 한해살이풀.

참눈: 사물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눈.

참먹: 품질이 아주 좋은 먹.

참꽃: 먹는 꽃이라는 뜻으로, '진달래'를 개꽃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59)은 '참'의 예인데, (59ㄱ)은 명사(어근) '참'이고, (59ㄴ)은 접사 '참-'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사실이나 이치에서 어긋나지 않음'의 의미에서 '진실한, 품질이 우수한, 먹을 수 있는' 등으로 의미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미의 변화성'으로 볼 때, '참-'은 접두사 처리가 가능하다. 대립적 의미를 가진 접두사로는 '개-'가 있다.

(60) ㄱ. 해(명):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을 세는 단위.

ㄴ. 해-(접사): ((어두움이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당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얼마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해썩: 당해에 새로 자란 여린 썩.

해콩: 당해에 난 콩.

해쌀: 당해에 새로 난 쌀. 「반대말」 묵은쌀.

(60)은 '해'의 예인데, (60ㄱ)은 명사(어근) '해'이고, (60ㄴ)은 접사 '해-'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해(명)'는 '1년 단위의 기간'을 뜻하는데, '해-'는 접사로서 '그 해에 자라난', '얼마 되지 않은'의 의미를 지녀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해-'는 접두사화되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61) ㄱ. 홀(명): 홀.[고어]

ㄴ. 홀-(접사):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짝이 없이 혼자뿐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반대말」 짝-.

홀몸: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

홀짐승: 암수의 짝이 없는 짐승.

(61)은 ‘홀’의 예인데, (61ㄱ)은 명사(어근) ‘호올’이고, (61ㄴ)은 접사 ‘홀-’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홀’이 단독으로 명사로 쓰인 예는 찾을 수 없지만, 중세국어에 ‘호올’이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호올’이 ‘홀’로 음운 생략이 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홀’은 홀수와 짝수를 아울러 이르는 ‘홀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에도 단일 어근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홀-’은 ‘혼자’의 뜻에서 ‘짝이 없음’의 의미를 갖고 있어 의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의미상 대립 관계에 있는 ‘짝’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62) ㄱ. 홀(명): 짝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겹으로 되지 아니한 것.

ㄴ. 홀-(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한 겹으로 된’ 또는 ‘하나인, 혼자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홀바지: 홀겹으로 지은 바지.

홀몸: 「1」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인 몸.

「2」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

홀으로(부): 헤아리기 쉬운 적은 수효로.

홀지다(형): 복잡하지 아니하고 단순하다.

(62)는 ‘홀’의 예인데, (62ㄱ)은 명사(어근) ‘홀’이고, (62ㄴ)은 접사 ‘홀-’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대립적 의미를 지닌 ‘겹-’은 [표준]에서만 접사로 보고 있는데 반해, ‘홀-’은 일곱 개 사전 모두가 접사로 처리하고 있다. ‘겹-’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낱말을 의미 변별성이 부족하여 접사로 보기 어렵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홀-’도 접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홀-’의 ‘한 겹으로, 하나로 된’의 뜻은 명사 ‘홀’과 의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홀-’과 ‘겹-’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홀고깔-겹고깔, 홀꽃-겹꽃, 홀남시-겹남시, 홀낫표-겹낫표, 홀눈-겹눈, 홀단-겹단, 홀담-겹담, 홀대패-겹대패, 홀도르래-겹도르래, 홀두루마기-겹두루마기, 홀매듭-겹매듭, 홀바지-겹바지, 홀버선-겹버선, 홀이불-겹이불, 홀집-겹집, 홀셈-겹셈, 홀실-겹실, 홀옷-겹옷, 홀이불-겹이불, 홀잎-겹잎, 홀집-겹

집, 훔창-겹창'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어근 + 어근'의 결합으로 보아 합성어로 처리한다.

'훔-'과는 결합이 자연스럽고 '겹-'은 결합할 수 없는 '훔고쟁이, 훔그루, 훔금, 훔깅데기, 훔단청(색이나 무늬가 번거롭게 많지 아니하고 단순한), 훔몸(딸린 사람이 없는, 아이를 배지 아니한), 훔무덤(↔어울무덤), 훔벌, 훔사람, 훔살이, 훔살창, 훔솔, 훔수'들에 쓰인 '훔-'도 '짜을 이루지 아니한, 겹으로 되지 아니한, 한 겹으로'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어근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 접두사 중 명사와 같은 형태를 가진 접두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사 어근 접두사 중 '간-, 겹-, 배내-, 소-, 쇠-, 훔-'은 명사 어근인 '간, 겹, 배내, 소, 쇠, 훔'과 거의 의미 변별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명사 어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는 '수컷'의 뜻을 가지는 경우는 어근으로 처리하고, '수나사, 수키와' 등에 결합한 것과 같이 '길게 나온 모양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잘 보이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접사로 처리한다. 그 예로는 '수단추, 수무지개, 수톨찌귀, 수틀' 등을 들 수 있다. '암-'도 '수-'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암-'도 접두사 '수-'와 준하여 접사로 처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6> 체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 선정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성	접사 설정 여부
간1-	-	-	+	×
겹-	+	-	+	○
겹-	-	-	+	×
겹-	+	-	+	○
피-	+	-	+	○
도래-	+	-	+	○
들 ⁻¹	+	-	+	○
만-	+	+	+	○

말-	+	-	+	○
먹-	+	-	+	○
배내-	-	-	+	×
소-	-	-	-	×
쇠 ⁻¹	-	-	+	×
수-	△ ¹⁷⁾	-	+	△
실-	+	-	+	○
안-	+	-	+	○
암-	△	-	+	△
애-	△	-	+	△
줄 ⁻¹	+	-	+	○
쪽-	+	-	+	○
참-	+	-	+	○
해 ⁻¹	+	-	+	○
홀-	+	+	+	○
흠-	-	-	+	×

4.2.2. 용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

용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는 용언의 의미 부분을 이루는 어간 부분과 접사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동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와 형용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로 나눠 살펴보도록 한다.

4.2.2.1. 동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동사 어근을 가진 고유어 접두사로 우리말 국어사전에 등재된 것은 모두 10개의 접두사를 찾을 수 있었다. 각각의 의미와 접사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17) '△'의 의미는 언어 상황에 따라 해당 자질을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그 자질에 따라 접사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표시한다.

<표7> 동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목록

접두사	뜻풀이	예시
내-	‘밖을 향하여’, ‘힘 있게’, ‘힘주어’	동)내갈기다, 내걸다, 내걸다, 내놓다, 내닫다, 내던지다, 내디디다, 내몰다, 내버리다, 내버티다, 내보내다, 내뿌리다, 내뿜다, 내쏘다, 내지르다, 내쫓다, 내치다, 내후리다, 내흔들다
내리-	‘아래로 향하여’, ‘줄곧’, ‘함부로, 세차게’	동)내리갈기다, 내리긋다, 내리까다, 내리깎다, 내리누르다, 내리닫다, 내리밀다, 내리박다, 내리쓰다, 내리엮다, 내리외다, 내리제기다, 내리지르다, 내리찍다, 내리짚다, 내리치다, 내리패다, 내리퍼붓다, 내리후리다 명)내리사랑
몰-	‘모두 한 곳으로’ 또는 ‘모두 한 곳에’ ‘모두 한 곳으로 몰린’	동)몰막다, 몰밀다, 몰박다, 몰붓다, 몰붙다 명)몰매, 몰죽음, 몰표
벌-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명)벌낮, 벌모, 벌물, 벌불, 벌웃, 벌타령
설-	‘충분하지 못하게’	동)설꾼다, 설굽다, 설깨다, 설다루다, 설되다, 설마르다, 설먹다, 설보다, 설삼다, 설익다, 설자다, 설죽다, 설찌르다, 설치다 명)설구이, 설늪은이, 설다듬이 형)설가다
외-	‘혼자인’ 또는 ‘하나인’ 또는 ‘한쪽에 치우친’ ‘홀로’	명)외가닥, 외가지, 외갈래, 외곶, 외기러기, 외길, 외날, 외눈, 외다리, 외떡잎, 외마디, 외벌, 외아들, 외자식, 외줄기, 외채, 외톨이 名)외고집, 외골수, 외문 동)외끼다, 외대다, 외돌다, 외두르다, 외떨어지다,
줄-	‘보잘것없는’, ‘점점 줄이어’	명)줄때기, 줄밥, 줄보기, 줄복, 줄아치 동)줄들다, 줄잡다, 줄자라다 형)줄되다
줄- ²	‘적게’ 또는 ‘줄이어’	동)줄잡다, 줄나다
홀-	‘마구’ 또는 ‘대강 휘몰아’	동)홀뒹다, 홀부시다, 홀빚다, 홀뿌리다, 홀싸다 명)홀매
휘-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 ‘매우’	동)휘갈기다, 휘감다, 휘날리다, 휘넣다, 휘늘어지다, 휘달리다, 휘더듬다, 휘뒹다, 휘돌다, 휘두르다, 휘말리다, 휘몰아치다, 휘살피다, 휘엮다, 휘적시다, 휘지르다, 형)휘넓다, 휘둥그렁다, 휘둥글다, 명)휘몰이, 휘문이, 휘손, 휘파람 ※휩싸다, 휩쓸다, 휩쓸리다

(63) ㄱ. 내다(동): 통로, 창문 따위를 만들다. ‘나다’의 사동사.

ㄴ. 내-(접사): 손 우리말 움직임에 붙어, ①‘밖을 향하여’, ②‘힘 있게, 힘주어’의 뜻.[한글]

※ 일부 동사에 붙어 ‘힘있게, 힘주어, 마구’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문식]

내걸다: 앞을 향하여 힘차게 걷다.

내달다: 갑자기 밖이나 앞쪽으로 힘차게 뛰어나가다.

내두르다: 이리저리 휘휘 흔들다.

내쫓다: 밖으로 몰아내다. 있던 자리에서 강제로 나가게 하다.

^내걸다: 밖이나 앞쪽에 내어 걸다.

^내놓다: 물건을 밖으로 옮기거나 꺼내 놓다.

^내물리다: 밖으로 내어서 물러나게 하다.

^내보내다: 밖으로 나가게 하다.

(63)은 ‘내-’의 예인데, (63ㄱ)은 동사 어근 ‘내-’이고, (63ㄴ)은 접사 ‘내-’로 동사의 의미 부분의 어간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내다’는 ‘나다’의 사동형으로 ‘안에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나 ‘창문, 통로 따위가 생기다’의 뜻을 지닌 ‘나다’의 사동형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외에 ‘힘을 주어’, ‘마구’, ‘억지로’의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내-’가 ‘내걸다, 내놓다, 내물리다, 내보내다’ 등과 같이 여전히 ‘내어서’의 의미를 지닌 경우는 ‘내다’의 의미를 고스란히 가지므로 접사로 설정할 수 없다. ‘안에서 밖으로’의 의미는 어원어인 ‘나다’의 의미와 큰 차이가 없어 접두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힘을 주어’, ‘마구’, ‘억지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어원어의 의미인 ‘창문 따위 밖으로 나가게 하다’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 경우에 한하여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64) ㄱ. 내리다(동): 위에 있는 것을 낮은 곳 또는 아래로 끌어당기거나 늘어뜨리다.

ㄴ. 내리-(접사): 주로 움직임 아래 붙어, ①‘아래로 향하여’, ②‘줄곧’, ③‘함부로, 세차게’의 뜻.[한글]

※ 일부 동사 앞에 붙어 ‘함부로, 사정없이 마구’의 뜻을 더 하는 접두사.[문식]

내리갈기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힘차게 치다.

내리꽃다: 어떤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힘차게 꽃다.

내리외다: 보았거나 들은 이야기 따위를 그대로 줄줄 외다.

내리후리다: 손을 들었다 아래로 휘둘러 치다.

위의 예들과 같이 ‘내리-’는 ‘낮은 곳으로 끌어당기거나 늘어뜨리다’의 ‘내리다’와는 다른 ‘줄곧, 함부로, 세차게’의 뜻을 가지고 있다. [표준]에서만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사전에서는 모두 접두사로 인정하고 있다. ‘내리-’는 ‘내리다’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65) ㄱ. 몰다(동): 어떤 대상을 바라는 처지나 방향으로 움직여 가게 하다.

ㄴ. 몰-(접사): 「1」 ((일부 용언 앞에 붙어)) ‘모두 한곳으로’ 또는 ‘모두 한곳에’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모두 한곳으로 몰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일부 동사나 명사 앞에 붙어 ‘죄다·모조리, 모두 한곳에’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몰밀다: 모두 한곳으로 밀다.

몰박다: 한곳에 촘촘히 몰아서 박다.

몰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비어 때리는 때.

몰표: 한 출마자에게 무더기로 쏘리는 표.

(65)는 ‘몰-’의 예인데, (65ㄱ)은 동사 어근 ‘몰-’이고, (65ㄴ)은 접사 ‘몰-’로 동사의 의미 부분의 어간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접사 ‘몰-’과 동일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 ‘몰다’는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다’의 의미를 지녔다. 반면에 ‘몰-’은 ‘모조리, 죄다, 모두’의 의미가 덧붙여져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몰-’은 접두사로 설정 가능하다.

(66) ㄱ. 벌다(동): 틈이 나서 사이가 뜨다.

ㄴ. 벌-(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별모: 「1」 『농업』 못줄을 쓰지 아니하고 손짐작대로 이리저리 심는 모.

「2」 『농업』 모판 구역 밖에 범씨가 떨어져 자란 모.

별불: 등잔불이나 촛불에서 심지 옆으로 뻗어 퍼지는 불.

별웃: 옷놀이에서, 정한 자리 밖으로 떨어져 나간 웃짖.

접두사 ‘벌-’은 ‘틈이 나서 사이가 뜨다’의 뜻을 가진 동사 ‘벌다’와 동근어이다. 의미상으로 ‘틈이 나서 사이가 벌어지다’가 ‘일정한 기준이나 테두리, 범위에서 벗어난’으로 전의되어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벌-’의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위에 제시한 단어 외에도 ‘별낫, 별물, 별타령’ 등의 예를 더 들 수 있다.

(67) ㄱ. 설다(동): 열매, 밥, 술 따위가 제대로 익지 아니하다.

ㄴ. 설-(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충분하지 못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설깨다: 잠이 완전히 깨지 못하다.

설듣다: 충분하지 아니하게 듣다.

설마르다: 충분하지 아니하게 마르다.

(67)은 ‘설-’의 예인데, (67ㄱ)은 동사 어근 ‘설-’이고, (67ㄴ)은 접사 ‘설-’로 동사의 의미 부분의 어간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설다’는 열매 따위가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 접두사 ‘설-’은 ‘제대로 익지 않은’에서 ‘충분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의 뜻으로 어의 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은 접두사로 처리해야한다. 또한 ‘설다’는 형용사로 ‘익숙하지 못하다[표준], 경험이 없이 서투르다[한글]’는 의미로 쓰이는데 익숙한 정도에 미치지 못해서 ‘충분하지 않은’으로 전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설-’과 연결되는 후행 어근이 동사인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동사인 ‘설다’에서 의미가 변화한 접사로 처리한다.

(68) ㄱ. 외다(동): 피하여 자리를 조금 옆으로 옮기다.

ㄴ. 외-(접사): 「1」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혼자인’ 또는 ‘하나인’ 또는 ‘한쪽에 치우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몇몇 부사 또는 동사 앞에 붙어)) ‘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외갈래: 오직 한 갈래.

외고집: 융통성이 없이 외곶으로 부리는 고집. 또는 그런 사람.

외따로: 홀로 따로.

외떨어지다: 홀로 외롭게 떨어지다.

‘외-’는 ‘외롭다<외롭다[孤]’의 어근과 동일 형태소로 보고 있다[문식]. 『용비어천가』에는 ‘고도(孤島)’를 ‘외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는 ‘홀로, 단독’의 의미를 지닌 어근이다.¹⁸⁾ ‘외지다(형)’, ‘외다(동)’, ‘외롭다’ 등은 모두 ‘외’를 어근으로 구성된 낱말인데, ‘외-’는 현대국어에서 보아 동사 ‘외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는 ‘피하여 자리를 조금 옆으로 옮기다’에서 ‘혼자인’, ‘하나인’, ‘한쪽으로 치우친’, ‘홀로’의 의미로 전의된 것으로 보이며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69) ㄱ. 졸다(동):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

ㄴ. 졸-(접사): ① ‘보잘것없는’의 뜻. ② ‘점점 줄이어’의 뜻.[한글]

졸밥: 찜을 잡도록 하기 위하여 매에게 미리 먹이는 찜고기 미끼.

졸잡다: 어느 표준보다 낮추어 헤아려 보다.

졸보기: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잘 보아도 먼 데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시력.

18) 백문식, 『우리말 어원 사전』, 399쪽.

(69)는 ‘졸-’의 예인데, (69ㄱ)은 동사 어근 ‘졸-’이고, (69ㄴ)은 접사 ‘졸-’로 동사의 의미 부분의 어간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졸다’는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작아지다’의 ‘졸다’와 모음교체에 의한 동근어이다. [한글]에서만 접사로 처리하고 있는 ‘졸-’은 ‘분량이 적아지다’에서 ‘점점 줄이어’의 의미로 쓰여 의미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한글]에서는 ‘보잘것없는’의 의미로 ‘졸때기’를 들고 있으나 이는 한자어 ‘졸(卒)’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졸-’은 접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70) ㄱ. 졸다(동):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작아지다.

ㄴ. 졸-²(접사): ‘적게’ 또는 ‘줄이어’의 뜻.[한글]

졸잡다: 어느 표준보다 줄여서 헤아려 보다.

졸나다: 생산물이 표준 수량보다 덜 나다.

‘졸-²’은 전항의 ‘졸-’과 동근어로 그 의미 또한 차이가 거의 없다. [한글]과 [갑수]에서만 접두사로 인정하고 있는 ‘졸-’은 생산성이 많지 않아서 ‘졸잡다, 졸잡아, 졸나다’ 정도가 쓰이는데, 모두 ‘줄이어, 덜’의 의미를 갖고 있어 동근어 ‘졸다(동)’의 어근부와 의미의 차이를 찾을 수 없어서 접사에서 제외한다.

(71) ㄱ. 훑다(동): ‘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북한어.

ㄴ. 훑-(접사): 주로 움직씨의 뿌리에 붙어 ‘마구 또는 대강 휘몰아’의 뜻.[한글]

훑답다: 휘몰아서 대강 훑쳐 답다.

훑부시다: 그릇 따위를 한꺼번에 몰아서 씻다.

훑뿌리다: 눈, 비 따위가 마구 날리면서 내리다.

(71)은 ‘훑-’의 예인데, (71ㄱ)은 동사 어근 ‘훑-’이고, (71ㄴ)은 접사 ‘훑-’로 동사의 의미 부분의 어간과 동일한 형태이다. ‘훑-’은 ‘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북한말 ‘훑다¹⁹⁾’에서 온 것으로 우리말에서 ‘휘-’가 ‘마구’, ‘매우 심하게’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인 것처럼 ‘홀-’도 ‘휘-’와 같은 의미를 가진 접두사이다. 다음은 (72)‘휘-’에 대해서 살펴본다.

- (72) ㄱ. 휘다(동): 꺾어놓았던 물체가 구부러지다. 또는 그 물체를 구부리다.
ㄴ. 휘-(접사): 「1」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몇몇 형용사 앞에 붙어)) ‘매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휘감다: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에 휘둘러 감거나 친친 둘러감다.
휘날리다: 거세게 펄펄 날리다. 또는 그렇게 날리다.
휘두르다: 이리저리 마구 내두르다.
휘둥글다: 놀라거나 두려워서 크게 뜬 눈이 유별나게 둥글다.
휩싸다: 휘휘 둘러 감아서 싸다. 어원> 휘+뿌다

(72)은 ‘휘-’의 예인데, (72ㄱ)은 동사 어근 ‘휘-’이고, (72ㄴ)은 접사 ‘휘-’로 동사의 의미 부분의 어간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접사 ‘휘-’는 일부 동사나 형용사 앞에 붙어 ‘마구, 매우, 매우 심하게’의 의미를 지닌다. 대체로 ‘휘-’가 쓰인 낱말들을 보면 ‘꺾어놓았던 물체가 구부러지다’를 뜻하는 ‘휘다’에서 온 말로 보인다. ‘휘-’는 ‘구부러지다’의 의미에서 ‘마구, 심하게, 매우’의 의미를 지내게 되어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이형태로 ‘휩-’이 쓰이는데 이는 후행 어근의 영향으로 ‘ㅂ’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휩싸다’ 외에 ‘휩싸이다, 휩싸다, 휩쓸다, 휩쓸리다’가 있다.

지금까지 동사의 어간 부분이 곧바로 접사로 쓰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접사 ‘내-’는 ‘밖으로 내어, 밖으로, 밖을 향해’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²⁰⁾은

19) [조선말대사전]에는 ‘홀다’는 ‘휘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휘다’는 ‘곧은 물체가 구부러지다’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20) 내걸다, 내물리다 등.

아직 접사화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밖으로 내어’보다는 ‘힘주어서, 힘 있게’로 의미가 있는 낱말은 선행 행태소를 접사로 설정할 수 있다.

‘졸-’, ‘졸-’은 동근어로 ‘졸아들다, 졸어들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큰 의미 변화를 찾을 수 없어 접사에서 제외시킨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사의 어간 부분을 접사로 볼 수 있는 10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8> 동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선정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능성	접사 설정 여부
내-	△	+	+	△
내리-	+	+	+	○
몰-	+	+	+	○
벌-	+	+	+	○
설-	+	+	+	○
외-	+	+	+	○
졸-	-	+	+	×
졸 ⁻²	-	+	+	×
흘-	+	+	+	○
휘-	+	+	+	○

3.2.2.2. 형용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형태 변화가 없이 형용사의 어간 부분과 동일한 형태가 접두사로 선정된 경우는 다음의 4개를 찾을 수 있었다. 형용사 어근과 동일한 형태의 접두사의 의미와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9> 형용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목록

접두사	뜻풀이	예시
늦-	‘늦은’ ‘늦게’	명)늦가을, 늦깎이, 늦더위, 늦둥이, 늦바람, 늦배, 늦장가, 늦제주, 늦철

접두사	뜻풀이	예시
		名)늦공부, 늦복, 늦자식 동)늦되다, 늦들다, 늦심다
쇠 ⁻²	‘작은’ ‘몹시 질기거나 고질이 된’	명)쇠갈매기, 쇠고도리, 쇠고래, 쇠구들, 쇠기러기, 쇠기침, 쇠눈, 쇠돌피, 쇠보리, 쇠병
엇-	‘어긋나게’ 또는 ‘빠투로’ ‘어긋난’ 또는 ‘어긋나게 하는’ ‘어지간한 정도로 대충’	동)엇가다, 엇갈다, 엇갈리다, 엇걸다, 엇깎다, 엇꼬 다, 엇끼다, 엇나가다, 엇날다, 엇달다(북), 엇막 다, 엇떡다, 엇메다, 엇물다, 엇바꾸다, 엇불다, 엇쓸다, 엇잡다, 엇지르다, 엇차다 명)엇가게, 엇가리, 엇그루, 엇길, 엇눈, 엇말, 엇뿌 리, 엇셈, 엇송아지, 名)엇각, 엇박자, 엇시조, 형)엇구수하다, 엇되다, 엇비슷하다, 엇지다
옥-	‘안으로 고부라져 있거나 고부라 짐’	명)옥니, 옥다리, 옥새, 옥생각, 옥셈, 옥자귀, 옥집 동)옥갈다, 옥깎다, 옥다물다, 옥벼르다, 옥죄다, 옥 쥐다, 옥생각하다

형용사의 어근이 접두사로 사용되는 경우로 어근 부분은 활용형에서 어간으로 어미의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모두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형태의 변형 없이 접두사로 쓰이는 경우는 다음 4개이다.

(73) ㄱ. 늦다(형): 「1」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

「2」 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 또는 시기가 한창인 때를 지나 있다.

ㄴ. 늦-(접사): 「1」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늦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몇몇 동사, 형용사 앞에 붙어)) ‘늦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늦가을: 늦은 가을.

늦심다: 곡식이나 식물을 제철보다 늦게 심다.

(73)는 ‘늦-’의 예인데, (73ㄱ)은 형용사 어근 ‘늦-’이고, (73ㄴ)은 접사 ‘늦-’으로 형용사의 의미 부분의 어간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늦가을’은 ‘늦은 가을’, ‘늦심다’는 ‘제철보다 늦게 심다’로 ‘늦다[晚]’의 의미와 전혀 차이가 없다. 접사를 이

루기 위해서는 후행 어기와 합쳐 새로운 의미를 지녀야 하는데 ‘늦가을’이나 ‘늦심다’의 경우는 ‘늦은’ 또는 ‘늦게’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의미 변화를 찾을 수 없어 접두사로 보기가 어렵다.

(74) ㄱ. 쇠다(형): 오래 되다. 늙어 굳어지다.[문식]

ㄴ. 쇠-²(접사): ①동식물 이름 앞에 붙어, ‘작은’의 뜻을 나타냄. 쇠고래, 쇠기러기, 쇠돌피. ②‘몹시 질기거나 고질이 된’의 뜻.[한글]

쇠기러기: 오리과의 철새. 몸은 기러기보다 작으며, 위쪽이 어두운 갈색, 아래쪽은 흰색이다. 가슴과 배의 가운데에는 검은 얼룩무늬가 있다.

쇠기침: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여 점점 더 심해진 기침.

쇠고집: 몹시 센 고집. 또는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

쇠돌피: 벼과의 두해살이풀. 높이는 20~50cm이며, 잎은 어긋나고 선 모양이다.

접사 쓰임을 확인한 6개 사전 중 [표준]²¹⁾만 접사로 보지 않은 ‘쇠-²’는 ‘오래 되거나 늙고 굳어진’의 의미를 가진 ‘쇠다(형)’의 실질형태소 부분이다. ‘늙고 굳어진’에서 ‘몹시 질기거나 고질이 된’으로 의미의 변화를 걸친 접두사이다.

(75) ㄱ. 엇다(형): 어떤 일을 하기에 거북할 만큼 모자라고 어중되다.

ㄴ. 엇-(접사): 「1」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어긋나게’ 또는 ‘삐뚤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어긋난’ 또는 ‘어긋나게 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몇몇 형용사 앞에 붙어)) ‘어지간한 정도로 대충’의

21) [표준]에서는 ‘쇠-¹’은 ‘소의 부위이거나 소의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표제어로 설정하고 있으나 ‘쇠-²’는 표제어에 올리지 않고 있다. 다만 ‘쇠고집’을 ‘쇠-¹’의 예로 놓은 것으로 보아 풀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쇠-²’를 ‘쇠-¹’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글]과 [문식]에는 ‘쇠-²’만 표제어로, [회승], [기문], [갑수]에는 둘 다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

뜻을 더하는 접두사.
 엇베다: 어긋나게 베다.
 엇길: 어긋나게 갈라진 길.
 엇비슷하다: 어지간히 거의 비슷하다.

(75)는 ‘엇-’의 예인데, (75ㄱ)은 형용사 어근 ‘엇-’이고, (75ㄴ)은 접사 ‘엇-’으로 형용사의 의미 부분의 어간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형용사 ‘엇다’는 ‘어떤 일을 하기에 거북할 정도로 모자라다’는 의미를 지녔는데, ‘엇-’은 ‘어긋난, 어긋나게 하는’의 뜻을 가져 접두사로 처리가 가능하다.

(76) ㄱ. 옥다(형): ①끝 부분이 안으로 조금 꼬부라져 있다. ②성질이 너그럽지 못하다[한글]

※ 동사로 ‘장사 따위에서 본전보다 밑지다.’의 뜻도 있음.
 큰말로 ‘옥다’

옥이다(동):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져 있게 만들다.

ㄴ. 옥-(접사): 몇몇 명사나 동사 앞에 붙어 ‘안으로 오그라진’의 뜻을 나타냄.[한글]

옥니: 안으로 옥게 난 이.
 옥다리: 바로 섰을 때에 두 다리가 ‘O’ 자처럼 옥은 다리.
 옥죄다: 옥여 바짝 죄다.

(76)는 ‘옥-’의 예인데, (76ㄱ)은 형용사 어근 ‘옥-’이고, (76ㄴ)은 접사 ‘옥-’으로 형용사의 의미 부분의 어간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표준]을 제외한 다른 사전에서 모두 ‘옥-’을 접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76ㄴ)의 ‘옥-’은 형용사 ‘옥다’의 의미나, ‘옥다’의 사동사인 ‘옥이다’의 의미와 변별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옥-’은 접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형용사의 어간과 일치하는 형태를 지닌 접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4개 중 ‘늦-’과 ‘옥-’은 이들과 결합한 낱말들이 모두 ‘늦다’와 ‘옥다’의 의미에서 거의 벗

어나지 않아서 접사 설정에서 제외하였다.

<표10> 형용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선정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성	접사 설정 여부
늦-	-	+	+	×
쇠 ⁻²	+	+	+	○
옛-	+	+	+	○
옥-	-	+	+	×

4.2.3. 수식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

수식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는 수식언(관형사, 부사)과 그 형태와 동일한 접사를 말하며 관형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와 부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로 나눠 살펴본다.

4.2.3.1. 관형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관형사와 동일한 형태를 지닌 접두사로 국어사전에는 7개가 올림말로 올라와 있다. 접두사 목록과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표11> 관형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목록

접두사	뜻풀이	예시
못-	‘수적으로 여럿임’	명)못매, 못밭길, 못사람, 못소리, 못입
새 ⁻²	‘새로운 것’	명)새마을, 새신랑, 새아기
옛-	‘옛날의’	명)옛거울, 옛글, 옛날, 옛말, 옛사랑, 옛일, 옛집, 옛터 (名)옛건물, 옛성, 옛정
온-	‘확 찬’, ‘완전한’, ‘전부의’	관)온갖 명)온골, 온달, 온마리, 온바탕, 온밤, 온채, 온통, 온품 (名)온공일, 온공전, 온승낙, 온압력, 온음, 온점, 온정신, 온허락
이듬-	‘다음’	명)이듬날, 이듬달, 이듬해
첫-	‘그것의 처음임’	명)첫가을, 첫걸음, 첫국밥, 첫길, 첫낚, 첫눈, 첫말, 첫머리, 첫발, 첫서리, 첫인상, 첫잠, 첫정,

접두사	뜻풀이	예시
허튼-	‘헤프게’, ‘함부로’, ‘쓸데없는’, ‘되지못한’	명)허튼가락, 허튼계집, 허튼고래, 허튼구들, 허튼곳, 허튼돈, 허튼모, 허튼사람, 허튼소리, 허튼수작, 허튼짓, 허튼춤,

관형사는 이어지는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관형사가 접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후행하는 어기는 대체로 명사이다. 관형사와 접두사는 뒤에 따르는 낱말을 한정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통사적 관계로 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또한 관형사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체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형태적 의존성’을 늘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개개의 낱말 형태로 보아 관형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형태적 의존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결국 관형사를 근원으로 하는 접두사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의미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77) ㄱ. 못(관): 수효가 매우 많은.

ㄴ. 못-(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수적으로 여럿임을 뜻함.[기문]

못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비어 때리는 매.

못발길: 여러 사람이 함부로 발로 차거나 밟는 발길.

못사람: 많은 사람. 또는 여러 사람.

(77)은 ‘못’의 예인데, (77ㄱ)은 관형사 어근 ‘못’이고, (77ㄴ)은 접사 ‘못-’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못-’을 접두사로 올리고 있는 사전은 [기문]뿐이다. 접사가 사용된 단어의 예에서 보듯 모두 ‘못(관)’과 의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보아야지 접사의 결합이라고 할 수 없다.

(78) ㄱ. 새(관): 「1」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2」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ㄴ. 새-²(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새로운 것’임을 뜻함.[기문]

새말: 새로 생긴 말.

새신랑: 갓 결혼한 남자.

새아기: 시부모가 새 며느리를 정답게 이르는 말.

(78)은 ‘새’의 예인데, (78ㄱ)은 관형사 어근 ‘새’이고, (78ㄴ)은 접사 ‘새-’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새-’를 접두사로 설정한 사전은 [기문]이다.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쓰인다는 것은 바로 뒤에 명사가 오고 ‘새-’는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는 관형사와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고 본다. ‘새말, 새신랑, 새아기’의 ‘새-’는 모두 ‘새로 생긴,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한’의 뜻으로 관형사인 ‘새’의 의미와 동일하다. 이들은 모두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봄이 적절하다.

(79) ㄱ. 옛(관): 지나간 때의. 옛날의.

ㄴ. 옛-(접사): 앞가지로 ‘옛날의’의 뜻.[한글]

옛길: 예전에 다니던 길.

옛날: 지난 지 꽤 오래된 시기를 막연히 이르는 말.

(79)은 ‘옛’의 예인데, (79ㄱ)은 관형사 어근 ‘옛’이고, (79ㄴ)은 접사 ‘옛-’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옛-’은 [한글]에서만 접두사로 설정하고 있다. 접두사로서의 의미도 관형사인 ‘옛’과 의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접두사는 후행어기 앞에 붙어 새로운 의미를 갖는 낱말을 만드는데, ‘옛-’은 관형사로 쓰여 이어지는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와 아무런 의미의 차이도 없다. 따라서 ‘옛’은 어근으로 보아야 한다.

(80) ㄱ. 온(관): 전부의. 또는 모두의.

ㄴ. 온-(접사): ‘꼭 찬’, ‘완전한’ 따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온달: 꼭 찬 한 달.

온마리: 동물을 가르거나 쪼개지 아니한 통짜.

온몸: 몸 전체.

‘온-’은 유일하게 [표준]에만 표제어로 올려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다. 관형사 ‘온’과 접사 ‘온-’은 모두 ‘온통, 전부의, 온전한’을 뜻하는데 동일한 형태를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누어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와 있다. 접사 ‘온-’에 이어지는 말이 주로 명사임을 고려하면 관형사 ‘온’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온’은 관형사로 처리하고, 후행 어기 앞에 붙었을 때는 실질 형태소끼리의 결합으로 보아 합성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81) ㄱ. 이듬(관): ‘다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희승][갑수]

ㄴ. 이듬-(접사): 몇몇 때를 나타내는 이름씨 앞에 붙어, ‘다음’의 뜻.[한글]

이듬달: 일정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그달 뒤에 돌아오는 달

이듬해: 바로 다음의 해.

[표준]에서는 ‘이듬’을 별도의 관형사로 올려 있지는 않다. 관형사로 설정한 사전에는 [희승][갑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 사전은 ‘이듬’을 관형사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접사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듬-’을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는 사전에는 [한글], [기문], [문식] 등이 있다. [표준]에는 관형사로도 접사로도 올림말로 올리지 않고 ‘이듬달’과 ‘이듬해’는 ‘이듬-달, 이듬-해’로 올려 있어 형태소 분석은 하고 있다. ‘논밭을 두 번째 갈거나 매다’로 ‘이듬하다’가 표제어로 올려 있다. ‘이듬하다’를 ‘이듬’에 접미사 ‘-하다’가 붙은 것으로 본다면 ‘이듬’은 어근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이듬’을 ‘다음’의 뜻을 갖는 관형사로 처리한다면 ‘이듬해’와 ‘이듬달’은 ‘다음 해’, ‘다음 달’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관형사 ‘이듬’의 의미와 거의 동일하다. 접두사는 후행 어근의 의미에 변화를 준다는 전제로 볼 때, ‘이듬-’을 접두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2) ㄱ. 첫(관): 맨 처음의.

ㄴ. 첫-(접사): 어떤 이름씨 앞에 붙어서 ‘처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한글]

첫눈: 겨울이 된 뒤에 처음으로 오는 눈.

첫사랑: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

첫여름: 여름이 시작되는 첫머리.

(83) ㄱ. 허튼(관): 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

ㄴ. 허튼-(접사): ‘헤프게, 함부로, 쓸데없는, 되지못한’ 등의 뜻.

허튼고래: 불길이 이리저리 통하여 들어가도록 김돌을 흘려서 놓은 방고래.

허튼소리: 함부로 지껄이는 말.

허튼수작: 함부로 하는 수작.

‘첫’과 ‘허튼’은 [표준]에서는 관형사로 풀이하였다. 그래서 별도의 접사를 표제로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이나 ‘허튼’이 후행 어기와 결합하였을 때의 의미 변화는 없어 보인다. 첫사랑(처음 하는 사랑), 첫눈(처음 내리는 눈), 허튼소리(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 소리), 허튼수작(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 수작) 등으로 풀이 되어 관형사가 체언 앞에 붙어 있는 모습과 접사가 후행 어기 앞에 붙어 있는 게 의미상 동일하다. 둘의 결합은 의미 변별이 없기에 접사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관형사로 나오는 표제어가 같은 모양으로 접두사로 쓰이는 경우, 이들이 접사로 설정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대상이 되는 접사가 모두 7개인 데, 이들은 모두 의미 변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는 관형사가 체언 앞에 붙어 수식하는 것과, 접사가 후행 어기 앞에 붙어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동일한 과정이어서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래 표의 7개의 경우는 모두 접사가 아니라 관형사로 처리할 수 있다.

<표12> 관형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선정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성	접사 설정 여부
못-	-	-	+	×
새 ⁻²	-	-	+	×
옛-	-	-	+	×
온-	-	-	+	×

이듬-	-	-	+	×
첫-	-	-	+	×
허튼-	-	-	+	×

4.2.3.2. 부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이번에는 부사와 동일한 형태를 지닌 접두사의 접사 선정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부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7개의 뜻과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3> 부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목록

접두사	뜻풀이	예시
갓-	‘이제 막, 금방’ 또는 ‘이제 겨우’	동)갓굽다, 갓나다, 갓나오다, 갓피다 명)갓밭이, 갓병아리 수)갓스물, 갓서른, 갓썬
들이- ¹	‘몹시’, ‘마구’, ‘갑자기’	동)들이갈기다, 들이꽃다, 들이끌다, 들이끼우다, 들이닥치다, 들이닫다, 들이대다, 들이덥비다, 들이뛰다, 들이먹다, 들이박다, 들이받다, 들이비추다, 들이올다, 들이웃다, 들이쪼다, 들이패다
막- ¹	‘거친’, ‘품질이 낮은’ ‘닥치는 대로 하는’ ‘주저없이’, ‘함부로’	명)막거름, 막걸리, 막고무신, 막국수, 막그릇, 막누더기, 막말, 막소금, 막일, 막춤, 막흠 동)막가다, 막거르다, 막되다, 막살다 부)막해야
맨-	‘다른 것이 없는’	명)맨구들, 맨눈, 맨다리, 맨땅, 맨몸, 맨발, 맨밥, 맨손, 맨입, 맨주먹, 맨흠
몽당-	‘적거나’ 또는 ‘달아서 못쓰게 된, 몽특한’	명)몽당머리, 몽당바지, 몽당붓, 몽당비, 몽당술, 몽당수염, 몽당연필, 몽당이, 몽당치마, 몽당칼
박-	‘세게, 힘차게’	동)박지르다, 박질리다, 박차다, 박치다
통-	‘통째’ ‘온통’, ‘평균’ ‘속이 비지 아니하고 차 있음’ ‘아주 심함’	명)통가죽, 통것, 통고추, 통구멍, 통구이, 통기둥, 통김치, 통나무, 통닭, 통마늘, 통머리, 통밀, 통바지, 통배추, 통버선, 통보리, 통뼈, 통소매, 통송곳, 통쇠, 통웃, 통유리, 통이불, 통잠, 통째, 통치마, 통회, 통후추 名)통감자, 통고집, 통모자, 통반석, 통복어, 통비단, 통유리, 동)통돌다, 통밀다, 통짜다, 통터지다, 통들다, 부)통밀어, 통으로, 통틀어

(84) ㄱ. 갓(부): 이제 막.

ㄴ. 갓-(접사): 스무 살 이상의 십의 배수되는 나이를 나타내는 수사 머리에 붙어서 이제 막의 뜻으로 쓰거나, 어떤 동사의 머리에 붙어서 그 동작이 끝난 뒤 오래 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말.[회승]

※ 몇몇 동사나 수사, 명사에 붙어 ‘이제 막, 금방 또는 이제 겨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문식]

갓스물: 나이가 이제 막 스물을 넘긴 나이.

갓굽다: 이제 막 굽다.

갓나다: 이제 막 나다.

갓피다: 이제 막 피다.

(84)는 ‘갓’의 예인데, (84ㄱ)은 부사 어근 ‘갓’이고, (84ㄴ)은 접사 ‘갓-’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위에서 ‘갓-’이 결합한 낱말은 모두 ‘이제 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의미의 변화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의미 변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접사로 처리할 수 없다. [표준]에서는 ‘갓’을 부사로만 처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갓-’이 들어간 예문들은 하나도 사전의 표제어로 올리지 않고 있다.

(85) ㄱ. 들이(부): 세차게 마구.=들입다.

ㄴ. 들이-¹(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몹시’, ‘마구’, ‘갑자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들이갈기다: 몹시 세게 때리다.

들이꽃다: 마구 꽃다.

들이닥치다: 갑자기 바짝 다다르다.

‘들이’는 ‘들이다[入]’의 어간으로, ‘안쪽으로’의 의미를 지녔었는데 ‘마구, 세차게’로 의미가 바뀐 부사이다. ‘들이갈기다, 들이꽃다, 들이닥치다’ 등이 부사 ‘들이’가 쓰이기 이전에 형성된 단어라면 ‘들이-’는 본래 의미에서 멀어져 접두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들이’와 결합하는 동사가 50여개 이상으로, ‘세차게 마구’의

뜻을 갖는 부사 ‘들이’가 생성되고 나서 후행하는 동사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들이’는 접사가 아니라 어근(부사)으로 보고자 한다.

(86) ㄱ. 막(부): ‘마구’의 준말로, 몹시 세차게. 또는 아주 심하게.

ㄴ. 막⁻¹(접사): 「1」 ‘거친’, ‘품질이 낮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닥치는 대로 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막고무신: 마구 생긴 고무신. 넓적하게 생긴 고무신을 코고 무신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막과자: 마구 만들어 질이 좋지 않은 과자.

막노동: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

막말: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

(86)는 ‘막’의 예인데, (86ㄱ)은 부사 어근 ‘막’이고, (86ㄴ)은 접사 ‘막-’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막⁻¹’은 ‘거칠고 품질이 낮거나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부사 ‘막’은 ‘몹시 세차게, 아무렇게나 함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른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본다.

(87) ㄱ. 맨(부):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

ㄴ. 맨(관):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ㄷ. 맨-(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눈: 안경이나 망원경, 현미경 따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는 눈.

맨다리: 살이 드러난 다리.

맨땅: 아무것도 깔지 아니한 땅바닥.

(87)는 ‘맨’의 예인데, (87ㄱ)은 부사 어근 ‘맨’이고, (87ㄴ)은 관형사 ‘맨-’, (87ㄷ)은 접사 ‘맨-’으로 어근과 접사가 동일한 형태이다. 부사 ‘맨’과 접사 ‘맨-’은 의미상 유사해 보이지만 부사의 경우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그것만 온통’의

의미를 지니는데 반해, 접사의 경우는 ‘다른 것을 갖추거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여 둘 사이는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어 ‘의미의 변화성’으로 볼 때 접사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맨’과 연결되는 후행어근은 주로 명사이지만 관형사 ‘맨’의 의미보다는 부사 ‘맨’의 의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8) ㄱ. 맨(부사): 이 산에는 맨 소나무뿐이다.

맨 → ‘온통’, ‘모두’

ㄴ. 맨-(접사): 그 물체는 맨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다.

맨- → ‘다른 것을 차지 않고’

(89) ㄱ. 몽당(부): 물건의 끝이 닳아서 몽푹하게 몽드라지거나 몽드라지게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말은 ‘몽뎡’.[조선말]

ㄴ. 몽당-(접사): 몇몇 명사에 붙어 ‘적거나 또는 닳아서 못쓰게 된, 몽푹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문식]

몽당비: 끝이 닳아서 몽푹하게 생긴 비.

몽당칼: 끝이 닳아서 모지라진 칼.

위의 낱말 외에 ‘몽당머리, 몽당바지, 몽당수염, 몽당연필’ 등도 모두 ‘그 끝이 닳거나 해져서 둥그스름하게 된 것’을 의미하여 [조선말]에 올라 있는 ‘몽당’과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몽당-’은 접사로 처리하지 않고 어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90) ㄱ. 박(부): 야무지게 굵거나 문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ㄴ. 박-(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세게, 힘차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문식]

박지르다: 힘껏 차서 쓰러뜨리다.

박차다: 발길로 냅다 차다.

박치다: 집어서 냅다 던지다.

‘박지르다, 박차다, 박치다’의 ‘박’은 ‘야무지게 굽거나 문대는 소리’인 ‘박(부)’에서 온 말로 보인다. ‘박-’은 부사 ‘박’과 의미는 많이 멀어졌고, ‘지르다, 차다, 치다’의 어근 앞에 붙어 ‘세게, 힘차게’의 의미를 더해준다. [문식] 외의 사전에는 접사로 올려있지 않지만 의미의 변화면으로 볼 때 이를 접사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91) ㄱ. 통(부): 「1」 ((주로 ‘않다’, ‘못 하다’, ‘없다’, ‘모르다’ 따위의 부정하는 말과 어울려 쓰거나 반문하는 문장에 쓰여)) ‘전혀’, ‘도무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긍정의 뜻을 가진 문맥에서)) ‘온통’의 뜻을 나타내는 말.

ㄴ. 통-(접사): 「1」((일부 명사 앞에 붙어)) ‘통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일부 명사나 동사 앞에 붙어)) ‘온통’, ‘평균’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통가족(명): 통째로 벗겨 낸 짐승의 가죽.

통거리(명): 어떤 물건이나 일을 가리지 아니한 채 모두.

통밀다(동):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평균으로 치다.

부사 ‘통’은 부정적인 내용에서 ‘전혀’, 긍정적인 내용에서 ‘온통, 모두’의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두사 ‘통-’은 ‘가르거나 쪼개지 않은 덩어리’, ‘한꺼번에, 평균으로’의 의미로 쓰인다.

부사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접사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부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선정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성	접사 설정 여부
갓-	-	+	+	×
들이 ⁻¹	-	+	+	×
막 ⁻¹	+	+	+	○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능성	접사 설정 여부
맨-	+	+	+	○
몽당-	-	+	+	×
박-	+	+	+	○
통-	+	+	+	○

부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로 사전에 올림말로 나와 있는 7개 중 ‘갓-’, ‘들어-’, ‘몽당’은 접두사로 그 부사와 형태가 동일하며 의미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접두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몽당’인 경우 [조선말]에만 올림말로 올라 있어²²⁾ 국어 생활에서 ‘몽당’이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라면 접사 선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4.3. 어근과 유사한 형태 접두사

형태 변화 어근 접두사는 접두사와 기원이 같은 낱말이 존재하는데, 그 형태의 일부가 변형되어 접두사로 쓰이는 경우를 이른다. 여기서도 앞의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명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동사·형용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관형사·부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등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4.3.1. 명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표15> 명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목록

접두사	뜻풀이	예시
가시-	‘아내’ 또는 ‘아내의 친정’	명)가시버시, 가시아비, 가시집, 가시할아버지
갓-	‘가죽으로 된’	명)갓대, 갓두루마기, 갓바치, 갓옷, 갓저고리, 갓풀
모다기-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명)모다기영, 모다깃매,
밭-	‘바깥’	명)밭걸이, 밭사돈, 밭아버이 名)밭부모, 밭상제, 밭주인

22) ‘몽당’과 어원이 비슷한 단어로는 ‘몽땅하다’가 있기는 하다.
몽땅하다(형): 끊어서 몽쳐 놓은 것처럼 짤막하다.[표준]

접두사	뜻풀이	예시
숫- ²	‘새끼를 배지 않는’	숫양, 숫염소, 숫쥐
웃-	‘위’	명)웃거름, 웃고명, 웃국, 웃돈, 웃물, 웃바탕, 웃어른, 웃웃, 웃짐 동)웃들다, 웃자라다, 웃치다
짹-	‘쌍을 이루지 못한’ 또는 ‘쌍을 이루는 것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명)짹귀, 짹눈, 짹발, 짹버선, 짹별, 짹사랑, 짹신, 짹짜이, 짹힘
풋-	‘처음 나온’ 또는 ‘털 익은’ ‘미숙한’, ‘깊지 않은’	명)푸둥지, 푸상투, 푸서리, 푸숨, 푸조기, 풋소, 풋가지, 풋감, 풋감자, 풋거름, 풋깃, 풋게, 풋고추, 풋과일, 풋기운, 풋김치, 풋꿀, 풋나락, 풋나무, 풋나물, 풋남새, 풋낫, 풋내, 풋눈, 풋다래, 풋담, 풋담배, 풋대추, 풋돈, 풋마늘, 풋머루, 풋머리, 풋미역, 풋바람, 풋배, 풋사랑, 풋숨씨, 풋술, 풋열매, 풋철, 풋콩, 풋호박 名)푸대접, 풋곡식, 풋면목, 풋인사, 풋장기, 풋정, 풋향기 형)풋되다
햇-	‘당해에 난’ ‘얼마 되지 않은’	명)햇가지, 햇감자, 햇강아지, 햇것, 햇고구마, 햇과일, 햇김, 햇나물, 햇담, 햇동, 햇들, 햇밤, 햇벼, 햇병아리, 햇보리, 햇비둘기, 햇숨, 햇잎 名)햇곡식, 햇과실

(92) ㄱ. 갓(명): 여자. 아내. 예) 가시 그리볼씨(월인상65) [고어사전]

ㄴ. 가시-(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아내’ 또는 ‘아내의 친정’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가시어머니: 아내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장모.

가시집: ‘처가’를 낮잡아 이르는 말.

‘가시’는 ‘갓(아내)’의 변화된 형태이다. ‘가시’는 현재 자립적 성격이 사라져서 접두사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옛날에는 실질형태소로 쓰이던 단어들이 현재에는 그 쓰임이 사라지고 복합어에서 선행 요소로만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된다. 현재의 언중들은 어원의 의미를 만연하게 짐작만 할 뿐 온전한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복합어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선행 요소는 홀로 자립성을 지니지 않으므로 접두사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래의 ‘갓-’, ‘모다기-’, ‘밭-’도 같은 이유로 접사로 설정한다.

- (93) ㄱ. 갓(명): 가죽. 鹿皮는 사슴의 가죽이라(월석1:16)
 ㄴ. 갓-(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가죽으로 된 것임을 뜻함.
 갓두루마기: 짐승의 털가죽으로 안을 댄 두루마기.
 갓바치: 예전에,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
- (94) ㄱ. 무더기(명): 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있는 더미나 무리.
 ※모다기(명): 무더기의 작은말로 보임
 ※모다기모다기(부): 자잘한 무더기가 여기저기 있는 모양.
 ㄴ. 모다기-(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뜻함.[희승]
 모다기령: 한꺼번에 쏟아져 밀리는 명령.
 모다기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어 때리는 때.
- (95) ㄱ. 바깥(명): 밖이 되는 곳. 어원) <밖결 <여훈>←밖+결
 ㄴ. 발-(접사): ‘바깥’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발사돈: 딸의 시아버지나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를 양쪽 사돈
 집에서 서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바깥사돈.
 발주인: 집안의 남자 주인을 높이거나 스스럼없이 이르는
 말.=바깥양반.
- (96) ㄱ. 숫(명): <수
 ㄴ. 숫⁻²(접사): ((‘양’, ‘염소’, ‘쥐’앞에 붙어)) ‘새끼를 배지 않는’의 뜻
 을 더하는 접두사.
 숫양, 숫염소, 숫쥐

(96)는 ‘숫-’의 예인데, (96ㄱ)은 명사 어근 ‘수’에 사잇소리가 더해진 형태이고, (96ㄴ)은 접사 ‘숫⁻²’으로, 명사 어근 ‘수’와 유사한 형태의 접두사이다. ‘숫-’이 결합한 낱말은 ‘숫양, 숫염소, 숫쥐’가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수-’와 같이 ‘수(명)’와

의미상 차이를 구별할 수 없어 접두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숫-’은 ‘수-’의 이형태이다.

(97) ㄱ. 우(명): → 위.(어떤 기준보다 더 높은 쪽. 또는 사물의 중간 부분보다 더 높은 쪽.)

ㄴ. 웃-(접사): ‘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아래’와 ‘위’의 대립이 있는 명사 앞에는 ‘윗’을 쓴다.

웃거름: 씨앗을 뿌린 뒤나 모종을 옮겨 심은 뒤에 주는 처음 주는 거름.

웃국: 간장이나 술 따위를 담가서 익힌 뒤에 맨 처음에 떠낸 진한 국.

웃돈: 본래의 값에 덧붙이는 돈.

(97)는 ‘웃-’의 예인데, (97ㄱ)은 명사 어근 ‘위’의 이전 형태이고²³⁾, (96ㄴ)은 접사 ‘숫-²⁾’으로, 명사 어근 ‘수’와 유사한 형태의 접두사이다. ‘웃-’은 명사 ‘우’에서 사잇소리가 더해진 형태의 접두사로 ‘위’의 뜻에서 ‘처음으로, 본래의 위에 덧붙인’의 의미를 더하는 말로 의미의 변화 과정을 겪고 있어 접두사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사한 모든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다.

(98) ㄱ. 짝(명):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 또는 그 중의 하나.

ㄴ. 짝짝이(명): 서로 짝이 아닌 것끼리 합하여 이루어진 한 벌.

ㄷ. 짝-(접사): ((쌍을 이루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쌍을 이루지 못한’ 또는 ‘쌍을 이루는 것과 조화되지 아니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짝귀: 양쪽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게 생긴 귀. 또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

23) ‘우’가 현재 ‘위’의 의미로 쓰인 예는 “城 우희 날흔 살 쏘샤: 維城之上 矢七十射”(龍歌 40章)이 있다.[고어사전(남광우) 참조]

짜사랑: 한쪽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

(98)는 ‘짜-’의 예인데, (98ㄱ)은 명사 어근 ‘짜’이고, (98ㄴ)은 접사 ‘짜-’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짜짜이’이다. ‘짜-’은 서로 짜이 아닌 것끼리 합하여 이루어진 한 별을 의미하는 ‘짜짜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된다.

(99) ㄱ. 풋: 풀(명) + -스

ㄴ. 풋-(접사): 「1」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풋고추: 아직 익지 아니한 푸른 고추.

풋잠: 잠든 지 얼마 안 되어 깊이 들지 못한 잠.

푸상투: 아무렇게나 틀어 맨 상투.

‘풋-’은 ‘풀’이 형태가 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의미는 ‘풀’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추상화 과정을 거쳐 ‘덜 익은, 미숙한’ 등의 의미를 더하고 있어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이형태로 ‘풀’에서 ‘ㄹ’이 탈락한 ‘푸-’가 있다. ‘풋’은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접사로, ‘풋가지, 풋감, 풋거름, 풋곡식, 풋나물, 풋눈, 풋바둑, 풋벼, 풋사랑, 풋정 등 100여개의 낱말을 이룬다.

(100) ㄱ. 햏: 해(명) + -스

ㄴ. 햏-(접사):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닌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 ‘당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얼마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햏감자: 당해에 새로 난 감자.

햏병아리: 새로 부화된 얼마 되지 않은 병아리.

(100)는 ‘햏-’의 예인데, (100ㄱ)은 명사 어근 ‘햏’에 사잇소리가 개입된 형태이

고, (100ㄴ)은 접사 ‘햇-’이다. ‘해(명)’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뜻하는데 ‘햇-’은 ‘그해에 새로 난’이라는 뜻을 더하고 있어 접사로 처리할 수 있다.

명사가 변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접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개 접사 중 ‘숫-²’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래의 명사에서 그 의미가 구체화 추상화 과정을 거쳐 특수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어서 접사로 처리할 있다.

<표16> 명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선정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성	접사 설정 여부
가시-	+	+	+	○
갓-	+	+	+	○
모다기-	+	+	+	○
밭-	+	+	+	○
숫- ²	-	+	+	×
웃-	+	+	+	○
짹-	+	+	+	○
푹-	+	+	+	○
햇-	+	+	+	○

4.3.2. 동사, 형용사 어근이 변화한 접두사

동사, 형용사 어근이 변화를 걸쳐 형태가 달라져서 용언의 어근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접두사들이 있다. 동사 어근이 변화 과정을 걸친 접두사화 형용사 어근이 변화 과정을 걸친 경우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4.3.2.1. 동사 어근이 변화한 접두사

동사 어근이 변화 과정을 겪어 접두사로 바뀌면서 형태의 일부가 바뀐 접두사로 12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온 접두사의 뜻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17> 동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목록

접두사	뜻풀이	예시
가랑-	‘가늘고, 잔, 갈라진’	명)가랑개미, 가랑눈, 가랑니, 가랑비
간- ²	‘이미 지나 간’, ‘지난’	명)간밤, 간달, 간해,
거머-	‘휘몰아 들어거나 가짐’	동)거머당기다, 거머들다, 거머들이다, 거머먹다, 거머삼키다, 거머안다, 거머잡다, 거머쥐다, 거머쥘다, 거머채다
검-	‘지나칠 정도로 몹시, 탐스럽게’	동)검뜯다, 검잡다, 검쥐다, 검흐르다 형)감세다, 검쓰다, 검질기다, 검차다
날-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다른 것이 없는’ ‘장례를 다 치르지 않은’, ‘지독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어 어떤 일에 서투른’, ‘부질없이’	명)날가죽, 날감자, 날건달, 날것, 날고기, 날기와, 날김치, 날내, 날도둑, 날떡, 날뛰다, 날반죽, 날보리, 날빨래, 날선비, 날술, 날치기, 날바람 名)날강도, 날곡식, 날嘔逆, 날백정, 날송장, 날주정
다가-	‘앞으로 옮김’	동)다가가다, 다가들다, 다가붙다, 다가앉다,
뒤-	‘몹시, 마구, 온통’ ‘반대로’ 또는 ‘뒤집어’	동)뒤굴리다, 뒤꿂다, 뒤넘다, 뒤덮다, 뒤몰다, 뒤바꾸다, 뒤받다, 뒤볶다, 뒤살피다, 뒤삼다, 뒤엎다, 뒤엎기다, 뒤짚어지다, 뒤집다, 뒤틀다, 뒤훔다, 뒤흔들다 명)뒤범벅, 뒤범석
드-	‘심하게’ 또는 ‘높이’	동)드날리다, 드밀다, 드세차다, 드숫다 형)드넓다, 드높다, 드다르다, 드바쁘다, 드밝다, 드사납다, 드세다
들이- ²	‘안쪽으로’	동)들이긋다, 들이꽃다, 들이밀다, 들이박다, 들이빨다, 들이삼키다
에-	‘빙 둘러, 에워’	동)에둘다, 에두르다 형)에굽다
엿-	‘몰래’	동)엿들다, 엿들여다보다, 엿보다, 엿보이다, 엿살피다
쳐-	‘마구’, ‘많이’	동)쳐걸다, 쳐넣다, 쳐담다, 쳐들이다, 쳐마시다, 쳐맡기다, 쳐매다, 쳐먹다, 쳐바르다, 쳐박다, 쳐씻다, 쳐엎다, 쳐쟁이다, 쳐지르다

(101) ㄱ. 가르다(동):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ㄴ. 가랑-(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가늘고 잔, 갈라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가랑개미: 아주 작은 개미.

가랑비: 가늘게 내리는 비.

가랑머리: 두 가랑이로 갈라뿔아 늘인 머리.

‘가랑’은 ‘가르다[分], 가루[粉]’에서 비롯한 말로 ‘가르(다) + 양’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접사 부분 ‘가랑’은 현대 국어에서 자립형태소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형태적 의존성’을 지니며 형태가 변화되어 의미가 변한 것으로 처리하여 접사로 본다.

(102) ㄱ. 가다(동): 「1」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2」 (('시간' 따위와 함께 쓰여)) 지나거나 흐르다.

ㄴ. 간-(접사): ‘이미 지나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지난.[희승]

간밤: 바로 어젯밤. 지난밤.

간달: → 지난달.

간이: 죽어 세상을 떠난 사람.

(102ㄴ)의 ‘간-’은 (102ㄱ) ‘가다’의 어간에 관형서형 전성어미 ‘-ㄴ’이 붙은 형태의 접사이다. ‘간-’은 ‘가다’의 관형사형과 형태가 같을뿐더러 의미상의 차이도 없다. ‘간이’는 ‘가다’가 ‘죽다’의 완곡한 표현으로 본다면 ‘간-’은 ‘가다’에서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간-’은 접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103) ㄱ. 검다(동): 흠어진 물건을 손이나 갈퀴 따위로 긁어모으다.

ㄴ. 거머-(접사): 앞가지로 ‘휘몰아 들이거나 가짐’의 뜻.

거머당기다: 휘감아 당기다.

거머잡다: 손으로 휘감아 잡다.

(103ㄴ)의 ‘거머-’는 (103ㄱ) ‘검다’의 어간에 연결어미 ‘-아/어’가 붙은 ‘검어’가 변화된 형태의 접사이다. ‘거머-’는 ‘흠어진 물건을 손이나 갈퀴 따위로 긁어모으다’의 의미를 가진 ‘검다’가 변화된 형태로 ‘휘감아서, 휘몰아’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의미의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형태의 변화도 이루어진 것²⁴⁾으로 볼 수

24) 한국 어문 규정집(국립국어원, 2018)의 ‘한글맞춤법’ 제15항 [붙임 1]에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있어 접사 처리가 가능하다.

(104) 검-(접사): 일부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언 앞에 붙어 ‘지나칠 정도로 몹시, 탐스럽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희승]

검뜯다: 거머잡고 뒤어뜯다.

검흐르다: 액체가 그릇이나 독 따위에서 넘쳐흐르다.

검잡다: 거머잡다의 준말.

검쥐다: 거머쥐다의 준말.

‘검흐르다’는 ‘독 따위에서 휘감아 넘쳐흐르다’의 뜻이다. ‘검뜯다, 검잡다, 검쥐다’ 등은 모두 ‘거머~’와 차이가 없어 ‘검-’은 ‘거머-’의 줄임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표제어로 올릴 경우는 별도 표제어로 기록하지만 ‘거머’의 이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105) ㄱ. 나다(동): 「1」신체 표면이나 땅 위에 솟아나다, 「2」 흉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다, 「3」 이름이나 소문 따위가 알려지다, 「4」 돈, 물건 따위가 생기다.

ㄴ. 날-(접두): 「1」‘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장례를 다 치르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4」‘지독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5」‘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어 어떤 일에 서투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6」‘부질없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날고기: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고기.

날밤: 익히거나 말리거나 하지 아니한 밤.

날바늘: 실을 꿰지 아니한 바늘.

날송장: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송장. 염습(殮襲)을 하지 아니한 송장.

하고 있다.

날강도: 아주 악독한 강도.

날짜: 「1」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먹을거리.

「2」 어떤 일에 익숙하거나 숙련되지 못한 것 또는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날밤: 부질없이 새우는 밤.

(105ㄴ)의 ‘날-’은 (105ㄱ) ‘나다[生]’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이 붙은 형태의 접사이다. ‘생겨나다, 생기다’의 의미에서 ‘익히지 않는, 다른 것이 없는, 장례를 치르지 않는, 지독한’ 등 여러 가지로 의미의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새로운 의미의 획득의 측면에서 ‘날-’은 접두사 처리가 가능하다.

(106) ㄱ. 다그다(동): 「1」 물건 따위를 어떤 방향으로 가까이 옮기다. 「2」 어떤 대상이 있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 그 대상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다

ㄴ. 다가-(접사): 동사의 앞에 붙어서 앞으로 옮김을 나타내는 말[갑수]

다가가다: 어떤 대상 쪽으로 가까이 가다.

다가서다: 어떤 대상이 있는 쪽으로 더 가까이 옮기어 서다.

다가앉다: 어떤 대상이 있는 쪽으로 더 가까이 옮기어 앉다.

(106ㄴ)의 ‘다가-’는 (106ㄱ)의 동사 ‘다그다’에서 유래한 낱말로, ‘다그- + ㅏ’ > ‘다가’의 과정을 걸쳤고, ‘다가가다, 다가서다, 다가앉다’ 등은 ‘다그다’의 의미인 ‘어떤 방향으로 가까이’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어 ‘다가’는 접사로 처리하기보다 어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107) ㄱ. 뒤집다(동): 안과 겉을 뒤바꾸다.

ㄴ. 뒤다(동): 곧지 않고 틀어지거나 구부러지다.

ㄷ. 뒤-(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1」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뒤덮다: 빈 데가 없이 온통 덮다.

뒤엎다: 「1」 물건의 위와 아래가 뒤집히도록 엎어 놓다.

「2」 일이나 상태를 전혀 딴 것으로 바꾸어 놓거나
틀어지게 하다.

(107ㄷ)의 ‘뒤-’는 (107ㄱ)의 ‘뒤집다’가 접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근이 줄어들
은 형태이고, 의미상으로 ‘온통, 마구, 전혀 딴판으로’ 등의 의미 강화 과정을 겪고
있어서 접사로 본다.

(108) ㄱ. 들다(동):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린다.

ㄴ. 드-(접사): ((일부 용언 앞에 붙어)) ‘심하게’ 또는 ‘높이’의 뜻을 더
하는 접두사.

드날리다1: 손으로 들어서 날리다.

드날리다2: 세력이나 명성 따위가 크게 드러나 널리 떨치
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드솟다: 기운차게 솟다.

드높다: 매우 높다.

(108ㄴ)의 ‘드-’는 (108ㄱ)의 ‘들다(동)’가 접사화하는 과정에서 어근의 일부인
‘르’이 탈락하여 후행 어근과 연결된다. 의미상으로 ‘위로 올린다’에서 ‘매우 심하
게, 높이’ 등의 의미 강화 과정을 겪고 있어서 접사로 본다. 다만 ‘드날리다1’와 같
이 ‘드-’가 ‘들다’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실질형태소로 보고 이 경
우에는 합성어로 처리해야 한다.

(109) ㄱ. 들다(동):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ㄴ. 들이다(동):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게 하거나 오게 하다.
‘들다’의 사동사.

ㄷ. 들이-²(접사): ‘안쪽으로’의 뜻.[한글]

들이긋다: 금을 안쪽으로 긋다.

들이밀다: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들여보내다.

들이쉬다: 숨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다.

(109ㄷ)의 ‘들이-²’는 (109ㄱ)의 ‘들다(동)’의 사동사인 (109ㄴ)의 ‘들이다(동)’의 어간과 같은 형태이다. ‘들이-’로 이루어진 단어들은 모두 ‘안쪽으로 향하여’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접사로 처리하기보다는 실질형태소인 어근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0) ㄱ. 에우다(동): 사방을 빙 둘러싸다.

ㄴ. 에다(동): 돌다. 돌아서 가다.[고어]

ㄷ. 에-(접사): 몇몇 용언 앞에 붙어 ‘빙 둘러, 에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문식]

에돌다: 곧바로 선뜻 나아가지 아니하고 멀리 피하여 돌다.

에두르다: 에워서 둘러막다.

에굽다: 약간 휘우듬하게 굽다.

(110ㄷ)의 ‘에-’는 현대어 (110ㄱ)의 ‘에우다’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고어 사전에 ‘에다’는 ‘돌다. 돌아서 가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대어에는 ‘에다’의 쓰임은 없고 [표준]에도 올려 있지 않다. ‘에-’는 일정 기간 문법화 과정을 겪고 어원어 ‘에다’는 쓰이지 않게 되어 의미상 흔적으로 ‘에우다’가 있다. ‘에-’와 결합한 단어들은 모두 ‘에워서, 빙 돌아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실질형태소의 어근으로 처리한다.

(111) ㄱ. 옛보다(동): 남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숨거나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여 대상을 살펴보다.

ㄴ. 옛다(동): ‘옛보다’의 옛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옛-’으로 나타난다.[고어]

ㄷ. 옛-(접사): ((몇몇 동사 앞에 붙어)) ‘몰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옛듣다(동): 남의 말을 몰래 가만히 듣다.

옛살피다(동): 남몰래 가만히 살피다.

(111ㄷ)의 ‘옛-’은 (111ㄱ)의 ‘옛보다’의 어근 형태가 변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옛-’은 ‘남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숨어 다생을 살피다’의 의미에서 ‘남몰래 가만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111ㄱ)은 [표준]의 표제어로 ‘옛-보다’의 형태로 표기되어 형태소 분석을 하고 있다. ‘옛-’은 ‘보다’라는 어근 옆에 붙어 ‘남몰래’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살필 수 있고 고어로서 ‘옛다’의 형태는 있으나 현재 쓰이는 경우가 없어 동사 ‘옛다’는 문법화 과정을 걸치고 나서 어원어가 사라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옛-’은 접사 처리할 수 있다.

(112) ㄱ. 치다(동):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세계 부딪게 하다.

ㄴ. 처-(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구’, ‘많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처먹다: 욕심 사납게 마구 먹다.

처넣다: 마구 집어넣다.

처담다: 마구 잔뜩 담다.

(112ㄴ)의 ‘처-’는 (112ㄱ)의 ‘치다’의 어간에 연결어미 ‘-아/어’가 이어진 형태로 어원어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접사이다. ‘처-’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세계 부딪게 하다’의 의미에서 ‘마구’, ‘많이’의 의미로 추상화 과정을 거쳐 의미가 변화되었다. 후행어근의 의미에 ‘마구’의 의미를 더하여 새말을 생성하고 있어서 접사로 처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사에서 형태가 변하여 접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접두사 설정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8> 동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선정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능성	접사 설정 여부
가랑-	+	+	+	○
간- ²	-	+	+	×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능성	접사 설정 여부
거머-	+	+	+	○
검-	+	+	+	○
날-	+	+	+	○
다가-	-	+	+	×
뒤-	+	+	+	○
드-	+	+	+	○
들이 ⁻²	-	+	+	×
에-	-	+	+	×
옛-	+	+	+	○
처-	+	+	+	○

4.3.2.2. 형용사 어근과 유사한 접두사

형용사 어근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등이 붙어 어근의 형태가 변화된 형태가 접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17가지이다.

<표19> 형용사 어근과 유사한 접두사 목록

접두사	뜻풀이	예시
불 ⁻²	‘붉은 빛깔을 가진’	명)불가마, 불구슬, 불개, 불개미, 불곰, 불밤송이, 불암소, 불여우, 불콩, 불호박
가막-	‘검은 빛깔’	명)가막관자, 가막덤불, 가막부리, 가막쇠, 가막조개,
까막	‘검거나 까만 빛깔’	명)까막관자, 까막딱따구리, 까막배자, 까막뒤집
된-	‘물기가 아주 적은’ ‘몹시 심한’ 발음할 때 ‘목청터짐소리가 따르는’	명)된감, 된길, 된더위, 된바람, 된서리, 된소리, 된시름, 된여울, 된추위 부)된통
메-	‘찰기가 없이 메진’	명)메귀리, 메기장, 메떡, 메밥, 메벼, 메수수, 메조, 멍쌀 형)메마르다, 메지다
살-	‘온전하지 못함’	명)살눈, 살얼음
선-	‘서툰’ 또는 ‘충분치 않은’	명)선떡, 선똥, 선머슴, 선무당, 선불, 선소리, 선웃음, 선잠, 선하품
숫 ⁻¹	‘더럽혀지지 않아 깨끗한’	명)숫각시, 숫감, 수컷, 숫국, 숫기, 숫눈, 숫눈길, 숫

접두사	뜻풀이	예시
	‘사람이 손 댄 것에서 처음’ ‘어떤 상태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는’	눈송이, 솟밥, 솟잠, 솟치녀, 솟티, 형)솟되다, 솟지다, 솟하다 부)솟제
열-	‘어린, 작은’	명)열무, 열소리, 열쫂이
옹-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물건이나 사람이 ‘작고 오목한’, ‘옹졸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명)옹룡, 옹방구리, 옹생원, 옹술, 옹시루, 옹시미, 옹심, 옹자배기
일-	‘일찍이’	동)일깨다, 일되다, 일심다, 일서두르다, 일올다
작은- ¹	‘말이가 아닌’	명)작은고모, 작은누이, 작은동서, 작은며느리, 작은 아버지, 작은이모, 작은조카
잔-	‘가늘고 작은’ 또는 ‘자질구레한’	명)잔가지, 잔걱정, 잔걸음, 잔기침, 잔돈, 잔돌, 잔뺨, 잔뿌리, 잔샘, 잔시중, 잔일, 잔재미, 잔주름, 잔챙이, 잔털, 잔풀 名)잔병, 잔사실, 잔수작, 잔정, 잔과동 동)잔갈다, 잔널다, 잔다듬다, 잔타다 형)잔다랗다, 잔달갑다, 잔달다, 잔짧다
차-	‘끈기가 있어 차진’	명)차조 名)차산병, 차전병
찰-	‘끈기가 있고 차진’ ‘매우 심한’ 또는 ‘지독한’의 ‘제대로 된’ 또는 ‘충실한’ ‘품질이 좋은’	명)찰가난, 찰감, 찰거머리, 찰깃, 찰기장, 찰담쟁이, 찰떡, 찰밥, 찰벼, 찰복숭아, 찰짚, 찰자, 찰흙, 찰쌀 名)찰개화, 찰교인, 찰구식, 찰기, 찰완고, 찰원수
큰-	‘말이’	명)큰누나, 큰딸, 큰아들, 큰집, 큰어머니, 큰형
한- ¹	‘큰’ ‘정확한’ 또는 ‘한창인’	명)한가슴, 한가운데, 한가위, 한가을, 한가지, 한걱정, 한겨레, 한겨울, 한고비, 한근심, 한글, 한길, 한낫, 한더위, 한데, 한마음, 한물, 한바다, 한바탕, 한밤, 한발, 한복판, 한봄, 한숨, 한시름, 한잠, 한창, 한철, 한턱, 한통속, 한패, 할아버지, 할머니, 황새, 황소 名)한골, 한공중

(113) ㄱ. 붉다(형): 빛깔이 핏빛 또는 익은 고추의 빛과 같다.

ㄴ. 불-²(접사):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붉은 빛깔을 가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불개미: 붉은색의 작은 개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불곰: 곰과의 하나로 대체로 온몸이 붉은 갈색이다.

불여우: 털빛이 불그스름한 여우.

(113ㄴ)의 ‘불-²’은 (113ㄱ)의 ‘붉다(형)’에서 ‘ㄱ’이 탈락한 형태로 보인다. 주로 동식물 이름 앞에 붙어서 ‘붉은 기운이 감도는, 마르고 야윈, 작은’의 의미를 더한다. 일부 단어에서는 여전히 ‘붉다’의 의미가 살아있고 일부에선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접두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소라고 생각된다. 의미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접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불[火]’를 어원이라고 보기도 한다.²⁵⁾

(114) ㄱ. 감다(형): 석탄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질다.

ㄴ. 가막-(접사): 일부 이름씨 뿌리에 붙어, ‘검은 빛깔’의 뜻. 센말로 ‘까막-’이 있다.[한글]

가막관자: 당상관이 아닌 벼슬아치나 일반 백성이 쓰던 검은 빨관자.

가막덤불: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엉클어져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덤불.

(114ㄴ)의 ‘가막’은 ‘산뜻하게 검다’의 뜻을 가진 (114ㄱ)의 ‘감다(형)’에서 유래한 말이다. ‘감- + 막’의 형태가 ‘가막’으로 굳어졌고, 문장 내에서 실질형태소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어 단어형성 요소인 접사로 처리할 수 있다. 센말로 ‘까막-’이 있으며 ‘까막-’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접사 처리할 수 있다.

(115) ㄱ. 되다(형): 「1」반죽이나 밥 따위가 물기가 적어 딱딱하다.

「3」일이 힘에 벅차다.

「4」몹시 심하거나 모질다.

ㄴ. 된-(접사): ①물기가 아주 적은. ②몹시 심한. ③발음할 때 ‘목청터짐소리가 따르는’의 뜻.[한글]

된밥: 물기가 적게 지은 밥.

된길: 몹시 힘이 드는 길.

25) 『우리말 파생어 사전』(백문식, 2004)에 ‘불-’은 ‘불[火], 붉다[赤]에 연유한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된바람: 매섭게 부는 바람.

된소리: 후두 근육을 긴장하면서 기식이 거의 없이 내는 자음.

(115ㄴ)의 ‘된-’은 (115ㄱ)의 형용사 ‘되다’의 관형사형과 형태가 같다. ‘된-’이 결합된 낱말들도 형용사 ‘되다’의 의미와 거의 일치하여 ‘된-’은 별도의 접사로 처리하지 말고 어근으로 처리해야 한다.

(116) ㄱ. 메지다(형): 밥이나 떡, 반죽 따위가 끈기가 적다.

ㄴ. 메-(접사): ((곡식을 나타내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찰기가 없이 메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메벼: 벼의 하나. 낱알에 찰기가 없으며, 열매에서 맵쌀을 얻는다.

맵쌀: 메벼를 짠 쌀.

메마르다: 땅이 물기가 없고 기름지지 아니하다.

(116ㄴ)의 ‘메-’는 (116ㄱ)의 ‘메지다(형)’의 형태 변화로 이루어진 접사라고 생각된다. 현대 국어에서 ‘메’로만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기에 어근 앞에 붙는 형식형태소로 볼 수 있어 ‘메-’를 접두사로 처리한다.

(117) 살-(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온전하지 못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살눈: 얇게 조금 내린 눈.

살얼음: 얇게 살짝 언 얼음.

‘살-’은 ‘설-’의 이형태로 본다. ‘설-’은 ‘충분하지 못하게, 덜, 온전하지 못한’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로 ‘살-’은 ‘설-’의 모음 교체에 의한 여린말로 볼 수 있다.

(118) ㄱ. 설다(형): 익숙하지 못하다.

ㄴ. 선-(접사):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서툰’ 또는 ‘충분치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선머슴: 차분하지 못하고 매우 거칠게 덜렁거리는 사내아이.

선웃음: 우습지도 않은데 꾸며서 웃는 웃음.

(118ㄴ)의 ‘선-’은 ‘익숙하지 못하다’의 뜻을 가진 ‘설다(형)’의 관형사형으로 명사 상당어가 후행 어기 자리에 온다. ‘선-’은 후행 어기에 ‘충분하지 않은’의 의미를 더하고 있어 접사 처리가 가능하다. 비슷한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후행 어기로 대체로 동사가 오는 ‘설-’이 있다.

(119) ㄱ. 숫되다: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ㄴ. 숫-¹(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더럽혀지지 않아 깨끗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숫눈: 눈이 와서 쌓인 상태 그대로의 깨끗한 눈.

숫음식: 만든 채 고스란히 있는 음식.

‘숫-¹’은 껍 생산성이 높은 접사임에도 그 어원을 찾기가 어렵다. ‘순박하고 어수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숫되다’²⁶⁾와 연관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현대 국어에서는 ‘숫하다, 숫되다’의 어근 형태로만 남아 있어 이 어근이 접두사화의 과정을 걸친 것으로 보인다.

(120) ㄱ. 여리다(형): 단단하거나 질기지 않아 부드럽거나 약하다.

ㄴ. 열-(접사): 몇몇 명사 앞에 붙어서 ‘어린, 작은’의 뜻을 더하는 말.

[한글]

열무: 어린 무.

열소리: 어린 소리.

(120ㄴ)의 ‘열-’은 ‘단단하거나 질기지 않아 부드럽거나 약하다’의 뜻을 가진 ‘여

26) 『우리말 어원 사전』(백문식) 325쪽에 ‘숫스럽다, 숫접다(순박하고 수줍어하는 티가 있다), 숫제(숫 접게, 처음부터 차라리), 숫지다(순박하고 후하다), 숫하다(순박하고 어수룩하다)’에서 어근 ‘숫(<순>’은 순박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리다(형)'가 줄어든 형태이다. [표준]에서는 접사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문장 안에서 '열-'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어 접두사로 처리한다.

(121) ㄱ. 옹하다(형):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옹졸하다.

ㄴ. 옹-(접사): 일부 이룸씨 앞에 붙어서 물건이나 사람이 '작고 오목한', '옹졸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한글]

옹방구리: 물을 길는 데 쓰는 동이 모양의 아주 작은 질그릇.

옹자배기: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꺾 벌어진 아주 작은 질그릇.

(121ㄴ)의 '옹-'은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의 의미를 가진 (121ㄱ)의 '옹하다', '옹졸하다'의 어근 부분만 가져와 접사로 쓰였다. 형태의 변화를 통한 접사화라고 보아 접두사로 본다.

(122) ㄱ. 이르다(형):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ㄴ. 일-(접사): 일부움직씨에 붙어, '일찍이'의 뜻을 나타냄.[한글]

일되다: 열매나 곡식 따위가 제철보다 일찍 익다.

일심다: 일찍 심다.

(122ㄴ)의 '일-'은 (122ㄱ)의 '이르다(형)'의 어간 부분이 축약된 형태로 보아 형용사 어근에서 '一'가 탈락하여 접두사가 된 형태로 분류하였다. 주로 동사 앞에 붙어 '일찍'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표준]과 [문식]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에서는 모두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다.

(123) ㄱ. 작다(형):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ㄴ. 작은⁻¹(접사):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말이가 아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작은누이: 둘 이상의 누이 가운데 맏누이가 아닌 누이를 이르는 말.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123ㄴ)의 ‘작은-¹’은 (123ㄱ)의 ‘작다(형)’의 어근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은’이 결합하여 접두사화 과정을 겪은 접사이다. ‘작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24) 작다(형): 「1」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2」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3」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4」 사람됨이나 생각 따위가 좁고 보잘것없다.
「5」 소리가 낮거나 약하다.
「6」 돈의 액수가 적거나 단위가 낮다.
「7」 ((‘작게는’ 꼴로 쓰여)) ‘범위를 좁힌다면’의 뜻으로 이르는 말.

‘작다’의 낱말 풀이에서 알 수 있듯, ‘작은누이’, ‘작은아빠’를 의미하는 부분은 없다. 정해진 크기보다 모자라거나 길이 등이 모자란 경우는 ‘작다(형)’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나 친족관계에서 ‘작은’은 ‘나이나 키가 작은’의 의미가 아니라 ‘막내로 태어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작은’은 접사로 처리해야 한다. ‘작은-’과 대립하는 ‘큰-’도 같은 이유로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다.

(125) ㄱ. 잘다(형): 「1」 알곡이나 과일, 모래 따위의 둥근 물건이나 글씨 따위의 크기가 작다.

ㄴ. 잔-(접사): ((몇몇 명사 앞에 붙어)) ‘가늘고 작은’ 또는 ‘자질구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잔걱정: 자질구레한 걱정.

잔소리: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그 말.

잔재미: 소소한 재미.

잘다듬다: 잘고 곱게 다듬다.

(125ㄴ)의 ‘잔-’은 (125ㄱ)의 ‘잘다(형)’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로, ‘잘다’의 의미와는 다른 ‘자질구레한’이라는 의미의 추상화 과정을 가져왔기에 접사로 처리할 수 있다. ‘잔다듬다’의 ‘잔-’은 ‘잘다’의 ‘ㄹ’이 ‘ㄷ’으로 바뀐 것²⁷⁾으로 ‘잔갈다, 잔쪼다’ 등이 있으며 접사 ‘잔-’의 이형태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잔-’은 위에서 살펴본 일곱 개의 모든 사전에서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지만 [표준]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다음의 단어들의 의미를 더 살펴보자.

- (126) ㄱ. 잔가지: 식물의 작은 가지 또는 생선 몸에 있는 가늘고 작은 뼈.
 ㄴ. 잔고기: 자그마한 물고기.
 ㄷ. 잔구멍: 작은 구멍.
 ㄹ. 잔돈: 단위가 작은 돈.
 ㄹ. 잔모래: 잘고 고운 모래.
 ㅂ. 잔별: 작은 별.

(126)에 쓰인 ‘잔-’은 모두 ‘물건 따위의 크기가 작은’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원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26)의 예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합성어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잔-’은 접두사화 과정에 있는 단어로 볼 수 있으며, ‘잔-’과 후행 어근과의 결합인 경우는 의미 변화 여부에 따라서 합성어나 파생어로 처리할 수 있다.

- (127) ㄱ. 찰지다(형): 반죽이나 밥, 떡 따위가 끈기가 많다.
 ㄴ. 차-(접사): ((‘ㅈ’으로 시작되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끈기가 있어 차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ㄷ. 찰-(접사): 「1」((‘ㅈ’으로 시작되지 않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끈기가 있고 차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부정적인 뜻을 가진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심한’ 또는 ‘지독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긍정적인 뜻을 가진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제대로 된’ 또는 ‘충실한’의 뜻

27) 『한국 어문 규정집』(국립국어원, 2018)의 ‘한글맞춤법 제29항’.

을 더하는 접두사. 「4」((식용으로 쓰이는 동물이나 열매를 나타내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품질이 좋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차조: 찰기가 있는 조.

찰거머리: 몸이 작고 빨판이 발달되어 잘 들러붙고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

찰흙: 끈기가 있어 차진 흙.

찰쌀: 찰벼를 찻은 쌀.

(127ㄷ)의 ‘찰-’은 ‘반죽이나 밥, 떡 따위가 끈기가 많다’의 의미를 가진 (127ㄱ)의 ‘찰지다’의 의미부를 가져온 것으로, ‘끈기가 있는, 매우 심한, 제대로 된, 품질이 좋은’ 등의 의미로 전의되었다. ‘차-’는 ‘찰-’의 변이형태이다.

(128) ㄱ. 크다(형): 「1」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ㄴ. 큰-(접사):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말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큰형: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말이인 형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128ㄴ)의 ‘큰-’은 (128ㄱ)의 ‘크다(형)’의 어근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다. (128ㄱ)은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의 의미인데 (128ㄴ)은 친족 관계의 ‘말이, 세상에 먼저 나온’의 뜻으로 추상화 과정을 걸친 접사이다.

(129) ㄱ. 큰골(명):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대뇌.

ㄴ. 큰곳(명): 크고 성대하게 차리고 하는 곳.

ㄷ. 큰길(명): 크고 넓은 길.

ㄹ. 큰돈(명): 액수가 많은 돈.

ㅁ. 큰솔(명): 안방 부엌에 거는 솔 가운데 가장 큰 솔.

하지만 ‘큰-’은 친족 관계를 제외한 경우에는 (129)과 같이 쓰이는 경우, ‘큰-’은 ‘크다’의 의미와 동일하여 실질형태소인 어근으로 처리하고 (129)의 예는 합성어로 볼 수 있다.

(130) ㄱ. 하다(형): ① 많다, ②크다

ㄴ. 한-¹(접사): 「1」‘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길: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

한낮: 낮의 한가운데. 곧, 낮 열두 시를 전후한 때를 이른다.

(130ㄴ)의 ‘한-¹’은 고어 (130ㄱ)의 ‘하다[多]’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관형사처럼 쓰여 후행 어근으로 명사가 온다. 현대 국어에서 ‘한’은 자립형태소로 쓰이는 경우가 없고 후행 어근의 의미 변화에만 영향을 주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접두사로 처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형용사 어근이 변해 이루어진 접두사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접두사 17개 중 1개인 ‘된-’을 제외한 16개를 접두사로 설정하였다.

<표20> 형용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선정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성	접사 설정 여부
불- ²	+	+	+	○
가막-	+	+	+	○
까막-	+	+	+	○
된-	-	+	+	×
매-	+	+	+	○
살-	+	+	+	○
선-	+	+	+	○
숫- ¹	+	+	+	○
열-	+	+	+	○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성	접사 설정 여부
용-	+	+	+	○
일-	+	+	+	○
작은 ⁻¹	△	+	+	△
잔-	△	+	+	△
차-	+	+	+	○
찰-	+	+	+	○
큰-	△	+	+	△
한 ⁻¹	+	+	+	○

4.3.3. 수식언과 유사한 접두사

명사, 동사,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관형사, 부사의 경우도 어근 부분을 그대로 차용하여 접두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듯이 어근 부분이 변이 과정을 걸쳐 접두사화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7개의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온 접두사 중 어느 경우도 관형사가 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가 없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관형사가 접두사로 쓰인 예도 일부 있으나 의미의 변화성으로 볼 때 접두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었다.(3.3.3.1. 항목 참조) 이는 아마 접두사가 후행하는 어근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과 관형사가 후행하는 체언의 의미를 한정하는 방식이 문법적으로 유사하여 접두사화 과정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항목만 다루기로 한다.

4.3.3.1. 부사 어근과 유사한 접두사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부사가 의미 전이 과정을 걸쳐 접두사화 하게 된다. 부사가 접두사화 되는 과정에서 그 형태의 변화를 겪은 접두사로는 6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목록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21> 부사 어근과 유사한 접두사 목록

접두사	뜻풀이	예시
덧-	‘거듭된’ 또는 ‘겹쳐 신거나 입는’ ‘거듭’ 또는 ‘겹쳐’	명)덧가지, 덧거름, 덧그림, 덧눈, 덧밥, 덧버선, 덧베개, 덧셈, 덧얼음, 덧웃, 덧잠, 덧치마 名)덧문, 덧양말, 덧인쇄, 덧창 동)덧걸치다, 덧긋다, 덧끼우다, 덧나다, 덧대다, 덧들다, 덧바르다, 덧붙이다 형)덧거칠다
되-	‘도로’ ‘도리어’ 또는 ‘반대로’ ‘다시’	동)되가지다, 되갈다, 되감다, 되나오다, 되넘다, 되놓다, 되누비다, 되눅다, 되돌다, 되돌아오다, 되들다, 되먹다, 되몰다, 되묻다, 되밀다, 되바꾸다, 되뺀다, 되사다, 되삼키다, 되새기다, 되쓰다, 되짚다, 되찾다, 되팔다, 되쫓다, 되틀다 명)되깎이, 되마중, 되먹임, 되박이, 되받이, 되새김, 되치기, 되풀이
들- ²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	동)들까불다, 들찌다, 들끓다, 들두드리다, 들대리다, 들떠들다, 들뜨다, 들볶다, 들부수다, 들비비다, 들쭈시다 형)들차다
맞-	‘마주대하여 하는’ 또는 ‘서로 엇비슷한’ ‘마주’ 또는 ‘서로 엇비슷하게’	명)맞구멍, 맞담, 맞담배, 맞도끼질, 맞돈, 맞두레, 맞바둑, 맞바람, 맞방아, 맞벌이, 맞불, 맞선, 맞싸움, 맞씨름, 맞절, 맞홍정 名)맞각, 맞계약, 맞고소, 맞교대, 맞대응, 맞무역, 맞보증, 맞장기, 맞적수, 맞혼인 동)맞걸다, 맞겨누다, 맞겨루다, 맞달리다, 맞당기다, 맞뒤집다, 맞들다, 맞물리다, 맞붙다, 맞서다 부)맞바로,
빚-	‘기울어지게’ ‘잘못’ ‘기울어진’	동)빚가다, 빚꺾다, 빚나가다, 빚나다, 빚놓다, 빚대다, 빚되다, 빚들다, 빚디디다, 빚뒤편, 빚뜨다, 빚맞다, 빚먹다, 빚보다, 빚서다 명)빚금, 빚말, 빚모서리, 빚이음, 빚줄 名)빚각, 빚면, 빚변
좁-	‘규모가 작음’, ‘㉠행동이나 됨됨이가 좁’	명)좁개, 좁것, 좁죄, 좁도둑, 좁말, 좁매미, 좁벌, 좁사내, 좁생이, 좁장사치, 좁짓, 좁팽이 名)좁생원 명)조랑말, 조랑마차, 조롬목, 조롬박, 조롬벌, 조롬복 형)좁되다, 좁스럽다

(131) ㄱ. 더(부사): 「1」 계속하여. 또는 그 위에 보태어.

「2」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ㄴ. 덧-(접사): 「1」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거듭된’ 또는 ‘겹쳐 신거나 입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일부 동사 앞에 붙어)) ‘거듭’ 또는 ‘겹쳐’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덧버선: 버선 위에 겹쳐 신는 큰 버선.

덧니: 배넛니 곁에 포개어 난 이.

덧붙이다: 붙은 위에 겹쳐 붙이다. ‘덧붙다’의 사동사.

(131ㄴ)의 ‘덧-’은 ‘계속하여, 그 위에 더해’의 뜻을 갖는 (131ㄱ)의 ‘더(부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덧-’은 원래 의미에서 ‘거기에 겹쳐서 입거나 신는, 포개어’의 뜻을 더하게 되었고 문법화 과정에서 ‘ㅅ’이 덧붙여졌다.

(132) ㄱ. 되하다(동): 다시 하거나 도로 하다.

ㄴ. 되(부): <옛> 도로, 다시

ㄷ. 되-(접사): 「1」 ‘도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도리어’ 또는 ‘반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다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되감다: 도로 감거나 다시 감다.

되깔리다: 도리어 놀려서 깔리다.

되살리다: 죽거나 없어졌던 것을 다시 살리다.

(132ㄷ)의 ‘되-’는 (132ㄱ)과 관련된 단어이나 지금은 화석화된 (132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문법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132ㄴ)은 사라지고 접사로 사용된 (132ㄷ)만 그 쓰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어원어가 사어(死語)가 되어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고, 단어 형성의 문법적 요소로만 쓰이는 경우는 접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3) ㄱ. 들들(부): 「1」콩이나 깨 따위를 휘저으며 볶거나 맷돌에 거칠게 가는 모양. 「2」남을 몹시 못살게 구는 모양.

ㄴ. 들-²(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들끓다: 한곳에 여럿이 많이 모여 수선스럽게 움직이다.

들부수다: 마구 부수다.

(133ㄴ)의 ‘들-²’은 ‘몹시 남을 못살게 구는 모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133ㄱ)의 ‘들들’과 연관된 접사로, ‘무리하게 힘들여, 마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는 ‘들이-¹’과 같이 ‘세차게 마구’의 의미를 가지는 ‘들이(부)’와도 관련이 된다.

(134) ㄱ. 마주(부): 서로 똑바로 향하여.

ㄴ. 맞다(동): 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이다.

ㄷ. 맞-(접사): 「1」((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마주대하여 하는’ 또는 ‘서로 엇비슷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주’ 또는 ‘서로 엇비슷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맞고함: 양편에서 서로 같이 지르는 고함. 또는 한쪽의 고향에 대하여 맞받아 지르는 고향.

맞바꾸다: 더 보태거나 빼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주고 다른 것을 받다.

(134ㄷ)의 ‘맞-’은 ‘사람이나 물건을 받아들이다’는 뜻의 (134ㄴ) ‘맞다(동)’에서 ‘서로 똑바로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134ㄱ)의 ‘마주(부)’가 변형된 형태이다. (134ㄷ)의 ‘맞-’은 ‘마주(부)’에서 ‘마주 대하여 하는, 서로 엇비슷한’의 의미를 더하고 있어 접사로 처리한다.

(135) ㄱ. 빗(부): 비뚜로. 가로로. 중세국어 ‘빗기다’의 어간형 부사.[고어]

ㄴ. 빗-(접사): 「1」((일부 동사 앞에 붙어)) ‘기울어지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일부 동사 앞에 붙어)) ‘잘못’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일부 명사 앞에 붙어)) ‘기울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빗대다: 곧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말하다.
 빗나가다: 움직임이 똑바르지 아니하고 비뚤로 나가다
 빗면: 비스듬히 기운 면.

(135ㄱ)의 ‘빗’은 ‘빗기다[橫]’에서 연유한 말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빗’이 부사로 쓰인 예는 ‘구루를 보고 늣므를 가스매 빗 흘리노라’(중간두시 언해)²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5ㄴ)의 ‘빗-’은 현대 국어에서는 독립적으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없으나 옛날에는 부사 형태로 쓰이던 단어로 현재는 독립성을 잃고 후행 어근과 함께 쓰이고 있다. 따라서 자립형태소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법화 과정을 걸친 접사로 처리한다.

(136) ㄱ. 조금(부): 정도나 분량이 적게. 「준말」 좀.

ㄴ. 좀-(접사): 몇몇 이름씨 따위에 붙어 ‘①규모가 작음’, ‘②행동이나 됨됨이가 째’의 뜻.[한글]

좀것: 좀스럽게 생긴 물건이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좀도둑: 자질구레한 물건을 훔치는 도둑.

(136ㄴ)의 ‘좀-’은 부사 (136ㄱ)의 ‘조금(부)’의 어형이 줄어든 형태이다. ‘좀-’은 [표준]에서는 접사로 보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사전에선 모두 접사로 처리하고 있다. ‘좀-’의 어원어는 ‘조금(부)’으로 문법화 과정에서 형태의 변화를 겪었을 뿐더러 ‘분량이나 정도가 적게’의 의미에서 ‘행동거지나 규모가 작음’의 의미로 의미의 전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접두사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 ‘사물의 규모가 보잘것없이 작다’는 ‘좀스럽다(형)²⁹⁾’, ‘물 따위가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의 ‘졸다(동)’도 연관된 단어로 보인다.

부사의 형태가 변이되어 접두사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6개의 접두사의 접사 설정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고어사전』(남광우, 2000) 745쪽에서 재인용.

29) 백문식은 『우리말 어원 사전』에서 ‘좀스럽다’를 ‘조금스럽다’에서 나온 말로 정리하고 있다.

<표22> 부사 어근이 변한 접두사 선정

접두사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불가성	접사 설정 여부
덧-	+	+	+	○
되-	+	+	+	○
들- ²	+	+	+	○
맞-	+	+	+	○
빚-	+	+	+	○
좁-	+	+	+	○

4.4. 고유어 접두사 목록 검토 결과

앞에서 접두사 선정 기준에 따라 어원어를 알기 어려운 접두사 40개를 제외한 접두사 설정 판단 대상 96개 접두사를 점검한 결과 26개를 제외한 70개 접두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접두사 유형별 선정 전후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3> 고유어 접두사 목록 검토 결과

검토 대상여부	접두사 유형		접두사		증감
			설정 전	설정 후	
대상	어근과 동일한 형태 접두사	명사 어근	24	18	-6
		동사 어근	10	8	-2
		형용사 어근	4	2	-2
		관형사 어근	7	0	-7
		부사 어근	7	4	-3
	어근과 유사한 형태 접두사	명사 어근	9	8	-1
		동사 어근	12	8	-4
		형용사 어근	17	16	-1
		관형사 어근	0	0	0
		부사 어근	6	6	0

검토 대상여부	접두사 유형	접두사		증감
		설정 전	설정 후	
	소계	96	70	-26
비대상	어원어를 알기 어려운 접두사	40	40	0
총 계		136	110	-26

본 4장에서 각 접두사마다 의미 및 해당 단어는 예시로 올렸기에 여기에서는 선정 기준에 따라 재선정한 목록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4> 고유어 접두사 재선정 목록

유형별		접두사	표제수
어근과 동일한 형태 접두사	명사 어근	걸-, 곁-, 꺾-, 도래-, 들 ⁻¹ , 만-, 말-, 먹-, 수-, 실-, 안-, 암-, 애-, 줄 ⁻¹ , 쪽-, 참-, 해 ⁻¹ , 흘-	18
	동사 어근	내-, 내리, 물-, 벌-, 설-, 외-, 흘-, 휘-	8
	형용사 어근	쇠 ⁻² , 엇-	2
	관형사 어근		0
	부사 어근	막 ⁻¹ , 맨-, 박-, 통-	4
어근과 유사한 형태 접두사	명사 어근	가시-, 갓-, 모다기-, 발-, 옷-, 짝-, 풋-, 햇-	8
	동사 어근	가랑-, 거머-, 검-, 날-, 뒤-, 드-,엇-, 처-	8
	형용사 어근	불 ⁻² , 가막-, 까막, 매-, 살-, 선-, 솟 ⁻¹ , 열-, 웅-, 일-, 작은 ⁻¹ , 잔-, 차-, 찰-, 큰-, 한 ⁻¹	16
	관형사 어근		0
	부사 어근	덧-, 되-, 들 ⁻² , 맞-, 빗-, 쯤-	6
소 계			70
어원어를 알기 어려운 접두사		강-, 개-, 걸-, 골-, 곰-, 군-, 녃-, 다-, 대-, 데 ⁻¹ , 데 ⁻² , 돌-, 돌-, 땅-, 떡-, 막 ⁻² , 매-, 맹-, 민-, 불 ⁻¹ , 새 ⁻¹ , 셋-, 시 ⁻¹ , 싹-, 알-,	40

유형별	접두사	표제수
	어리-, 얼-, 오-, 올-, 옹달-, 이-, 종-, 짓-, 치-, 한 ⁻² , 핫 ⁻¹ , 핫 ⁻² , 헛-, 황-, 회-	
계		110

어근과 동일한 형태가 접두사로 쓰이는 접두사에서, 체언(명사)과 형태가 동일한 접두사 중에서 ‘간⁻¹, 겁-, 배내-, 소-, 쇠⁻¹, 흘-’이, 동사 어근과 동일한 형태를 지닌 접두사 중에서 ‘졸-, 줄⁻²’이, 형용사 어근과 동일한 접두사 중에서는 ‘늦-, 옥’이, 관형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인 ‘못-, 새⁻², 옛-, 온-, 이듬-, 첫-, 허튼-’이, 부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중 ‘갓-, 들이⁻¹, 몽당-’ 등이 접두사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어근과 유사한 형태의 접두사 중에서는 명사 어근과 형태가 비슷한 접두사 ‘숫⁻²’이, 동사 어근과 유사한 형태의 접두사 중 ‘간⁻², 다가-, 들이⁻², 예-’ 등이, 형용사 어근과 유사한 형태의 접두사 중 ‘된-’이 접두사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접두사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형태론적 입장에서, 어휘론적 입장에서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접사화 과정을 의미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업적들도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6개의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올라온 접두사들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고, 연구의 대상은 고유어 접두사로 하였다.

접두사 선정에 대한 많은 기준 중에서 공통적이고 일반화가 가능한 기준으로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 불가성을 제시하였다.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는 접사가 후행 어기에 붙어 새로운 의미를 갖는 단어이기 때문에 접두사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의미 생성에 기여하는 방법으로는 후행 어기의 의미를 구체화, 세분화하는 경우와 의미를 추상화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접두사는 단어 단위를 이루는 하위 요소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 통사 범주에 속하므로 접두사는 형태적 의존성을 띠어야 하고, 후행 어기와의 긴밀도가 높아서 접두사와 후행 어기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보았다.

위에 제시한 접두사 선정 기준인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분리 불가성을 기준으로 시중의 6개 사전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중복 올림말을 제외한 136개의 접두사 중 일반 단어에서 어휘화 과정을 걸치면서 접두사로 변한 것으로 보이는, 어원어를 알 수 있는 접두사 96개를 대상으로 접두사 설정 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접두사는 생성 근원으로 볼 때, 대체로 실질적 형태소가 문법적 과정을 거쳐 생성되거나 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화 과정을 걸치면서 실질적 형태소인 어원어의 형태를 찾기 어려운 접두사와 변화의 과정을 덜 겪어 어원어를 알 수 있는 접두사로 나누어 접두사를 설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어원어를 알 수 있는 접두사의 경우는 다시 어근과 동일한 형태의 접두사와 형태의 변화 과정을 부분적으로 겪은 어근과 유사한 형태의 접두사로 나누고, 이들을 각각 어원어의

기능에 따라 체언 어근, 용언 어근, 수식언 어근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유형별로 검토한 결과 국어사전마다 일부 접두사의 설정을 달리한 것은 접두사 설정 기준의 차이와 의미 해석의 차이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의미의 변화성’, ‘형태적 의존성’, ‘불리 불가성’의 기준을 가지고 접두사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외된 접두사들은 다음과 같다.

체언(명사)을 어원으로 하는 접두사 중에서 ‘간⁻¹, 겹-, 배내-, 소-, 쇠⁻¹, 훔-, 솟⁻²’, 용언 어근을 가진 접두사 중에는 동사 어근인 ‘졸-, 줄⁻², 간⁻², 다가-, 들이⁻², 에-’, 형용사 어근인 ‘늦-, 옥-, 된-’, 수식언을 어원으로 하는 접두사 중 관형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인 ‘못-, 새⁻², 옛-, 온-, 이듬-, 첫-, 허튼-’, 부사 어근을 가진 접두사 중 ‘갓-, 들이⁻¹, 몽당-’ 등을 접두사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조사 대상 136의 접두사 중 26를 제외한 110개를 고유어 접두사로 설정하였다. 특히 관형사와 접두사는 문법적 기능이 유사하여 관형사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는 접두사는 관형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의미도 큰 차이가 없어서 해당 접두사들은 어근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접두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기초로 검토한 이 연구는 새로운 사전 편찬이나 국어 생활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논문, 학술지>

- 강돈목(1984), 「한국어 접두사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1991), 「근대국어의 접두사 설정의 한계와 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학논집 제19집.
- 김덕신(1997), 「국어 고유어 접두사의 발달 과정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덕신(2004), 「국어접두사화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윤(2003), 「국어 어휘화 현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주, 안효경(1997), 「현대국어접두사 확립기준에 대하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 제5집.
- 김한샘(2013), 「국어 파생어 교육 연구」, 『배달말』 53호.
- 문실(2018), 「단어 형성법 교육 내용의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주(2000), 「국어 단어 형성법의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지(2018), 「한국어 ‘관형사+명사’ 구성의 사용역별 사용양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환갑(1972), 「접두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연구보고서.
- 안주호(1996), 「명사 파생의 문법화 연구: ‘터ㅎ’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 소 어학연구 제32집.
- 오규환(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왕방(2009), 「한국어 접두사 의미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미진(2012), 「한국어학습자의 파생어 교육을 위한 접사 목록 선정 연구」, 연세대 『한국사전학』 23호.
- 이민희(2014), 「한국어 접두사의 범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혜(2002), 「한국어 파생명사의 재분류와 목록화」, 『한글』 255호.
- 이흥식(1993), 「현대국어의 고유어 접두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애(2002), 「우리말의 접두사 되기」, 국어국문학 21호.

정경애(2004), 「우리말 실사의 접두사 되기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규일(1989), 「한국어 어휘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대희(2012), 「국어의 명사 파생법 변화 연구」, 『한말연구』 30호.
 카노크완(1999), 「현대 한국어의 파생어 형성의 특성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철의(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연구보고서.

<저서>

고영근(199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국립국어원(2018), 『한국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원.
 기주연(1994), 『근대국어 조어론 연구(1)』, 태학사.
 김계곤(1996),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회 국어학총서 21, 태학사.
 남기심, 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성광수(2001), 『국어의 단어형성과 의미해석』, 월인.
 시정곤(1998),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연변사회과학원어문연구소 편(1987), 『조선어 연구 1』,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이익섭, 임홍빈(1992),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주행(1993), 『현대국어 문법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주행(2001), 『한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정동환(1993), 『국어복합어의 의미 연구』, 서광 학술 자료사.
 최규일(2009), 『한국어 어휘형성론』, 제주대학교출판부.
 최형용(2013), 『한국어형태론의 유형론』, 도서출판 박이정.
 하치근(2010), 『우리말 파생형태론』, 도서출판 경진.

<사전>

『17세기 국어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태학사.

『고어사전』, 남광우 편저, 교학사.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민중서림.

『국어대사전』, 한갑수 감사. 상지사.

『새국어사전』, 이기문 감수, 동아출판.

『우리말 어원 사전』, 백문식, 도서출판박이정.

『우리말 파생어 사전』, 백문식, 삼광출판사.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주)어문각.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두산동아.

『한국어 파생명사 사전』, 이양혜, 국학자료원.

Abstract

국어의 고유어 접두사 선정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Native Prefix Selection of Korean Language

이 상 호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cademic Supervisor: 최대희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coming up with a definite criterion for selecting a corpus of native Korean prefixes which form the basis of derivatives in the modern Korean language and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criterion,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e selected native prefixes that already exist in 6 major Korean dictionaries. It was noted that the prefixes that have been inserted into the 6 current Korean dictionari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attempts have been made accordingly to come up with a plan to round up all of them together in this paper.

Amongst the myriad of criteria that exist in selecting prefixes, the 'change of meaning', 'morphological dependencies' and 'inseparability' were suggested for the commonalization or generalization process. Under these criteria, amongst the prefixes that can be found in 6 mainstream dictionaries, overlapping entries were eliminated and amongst the 136 prefixes that were picked, 96 prefixes whose origin could be indentified by going through a lexicalization process from being a common vocabulary were tested to see if they met the conditions of being selected.

As a result of the validity test in being selected as prefixes, the prefixes shortlisted for elimination were as follows: amongst the prefixes that originated from being substantives(nouns), ‘간⁻¹(gan⁻¹), 겁⁻(gyeop⁻), 배내⁻(baenae⁻), 소⁻(so⁻), 쇠⁻¹(sae⁻¹), 흘⁻(hot⁻), 솟⁻²(sut⁻²)’, among the prefixes that have predicates as their origin ‘졸⁻(jol⁻), 줄⁻²(jul⁻²), 간⁻²(gan⁻²), 다가⁻(daga⁻), 들이⁻²(deulie⁻²), 예⁻(e⁻)’, adjective originated prefixes of ‘늦⁻(neut⁻), 옥⁻(ok⁻), 된⁻(daen⁻)’, amongst the prefixes that have originated from modifiers and also have adjectives as roots ‘못⁻(mut⁻), 새⁻²(sae⁻²), 옛⁻(yet⁻), 온⁻(on⁻), 이듬⁻(ideum⁻), 첫⁻(cheot⁻), 허튼⁻(heoteun⁻)’, amongst the prefixes that have adverbs as its root ‘갓⁻(gat⁻), 들이⁻¹(deuli⁻¹), 몽당⁻(mongdang⁻)’.

Through the above mentioned process, amongst the 136 prefixes that were selected for testing, other than the 26 that were eliminated, about 110 native prefixes were finally settled on. Determiners and prefixes have similar grammatical functions and not much difference in meaning so for prefixes that have originated from determiners, they were given the suggestion of being set up as root words. It is hoped tha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reinvestigated into the basic concept of prefixes could have a partial contribution in publishing new dictionaries or in everyday Korean language usage.